6.15주간

주체90(2001)년

6.15Weekly 제19호(10월 26일 - 11월 1일)

특집 전쟁불구름 몰아오는 미국과 일본



노작 - 서부독일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와 한 담화

회담 주최측이 선정하는 장소를 따라야 한다

- 북남상급회담 북측 대표단단장 통지문

이회창한나라당총재의
김정일국방위원장 답방 반대에 대한 통일연대 논평

주체사상 학술토론회(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 통일위원회, 충청총련)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10월 26일 - 11월 1일)



서부독일 녀류작가 루이저 린저와 한 담화

주체69(1980)년5월 18일

나는 선생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서로 초면이지만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안고 한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수 있는것은 다같이 공동투쟁의 길을 걸어왔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일본제국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였고 선생은 히틀러파시스트를 반대하여 싸웠습니다. 선생은 파시스트를 반대하여 투쟁하다가 사형선고까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선생을 만나는것을 같은 사상과 지향을 가진 전우들의 상봉으로 귀중히 여기며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선생이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적극 지지하고있는데 대하여서와 나라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고있는 우리의 애국적민주인사들을 도와 성의있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시대는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입니다.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매개 민족의 권리이며 그 어떤 민족도 남에게 예속되거나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주성이 있어야 민족의 행복이 있고 영예가 있으며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습니다.

오늘 자주성을 지향해나가는것은 하나의 세계적 추세로 되고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이 쏘련과 이란에 압력을 가하고있는데 구라파의 일부 자본주의나라들은 여유있게 행동하면서 지난 시기처럼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하려 하지 않고있습니다. 이란에서도 제국주의예속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미국의 진면모에 대하여 알고 미국을 비롯한 지배세력에 얽매여 살지 않으려는 의지가 날이 갈수록 표면화되고있는것은 아주 좋은 징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개 나라들이 나라와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을 견지하는데서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혁명과 건설을 편향없이 전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자주성을 견지하면 좋은 로선과 정책이 나오고 그 실현을 위한 방법론이 나오기마련입니다.

선생은 나를 세계인민의 수령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세계에는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번에 찌또대통령의 장례식에 가서도 세계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조의를 표시하러 온것을 보고 유고슬라비아 지도자들에게 찌또대통령이 생전에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신에 맞게 자주로선을 견지하고 광범한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한 사업을 잘한것을 비롯하여 훌륭한 일을 많이 하였기때문에 이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자주성의 시대인것만큼 현시대의 추세에 역행하는 대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대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은 일부 작은 나라들이 저들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나라에 있는 자기네 지지파들을 부추겨 그 나라 당을 반대해나서도록 하고있습니다. 어떤 나라 공산당은 두파로 갈라져 서로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단결하지 못하고있는데 이것은 파벌의 배후에 분렬을 조장하는자들이 있는것과 관련되여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시기 자주성을 견지하는데서 파벌을 조장시키는 대국주의를 비롯한 지배주의세력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이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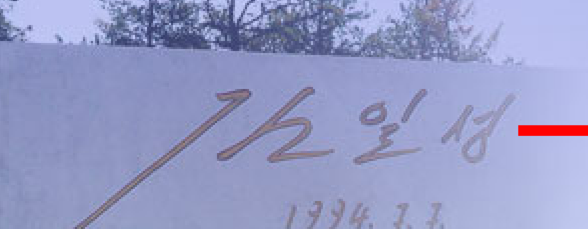
지금 세계의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공산주의자들이 건설하는 사회주의에 대하여 공포감을 가지고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건설되면 자기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길수 있다고 생각하고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는 우리 나라가 일제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된 직후에 인민들에게 우리는 쏘련식민주주의도 아니고 미국식민주주의도 아닌 조선식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려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두가 새 사회 건설에 떨쳐나설데 대하여 호소하였습니다. 우리는 민주개혁을 실시할 때 지난날 일제의 앞잡이노릇을 한 극소수의 민족반역자들을 제외한 중소기업가들의 재산에는 조금도 손을 대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들과 손잡고 나아갔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의 기업가들은 명색이 기업가지 식민지나라 기업가로서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그들도 새 조국 건설에 리해관계를 가지고 일정하게 기여할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밭갈이하는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기 위한 토지개혁을 하는데서도 부농들의 땅을 몰수하지 않고 그들에게도 토지소유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때에 미제침략자들의 야수적인 폭격에 의하여 기업가들과 부농들이 재산을 모두 잃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전후에 와서 령락된 인민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와 농촌에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거기에 중소기업가들과 부농들도 들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체를 세우고 조선식사회주의를 건설하려고 결심하게 된것은 우리 나라가 처한 지리적환경과 력사발전의 특수성과 관련되여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지리적으로 큰 나라들사이에 위치하여있다보니 력사적으로 큰 나라들의 침략대상으로 되여왔습니다. 우리 선조들가운데는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리조말기에 와서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이 친청파, 친로파, 친일파, 친미파로 갈라져 사대주의를 하다보니 우리 나라는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우고말았습니다. 이런 력사의 교훈으로부터 우리는 큰 나라를 등에 업고 분파행동을 하는 사대주의자들과 사대주의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습니다.

우리는 새 사회 건설에서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 해방직후부터 후대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작고 돈도 많지 못한 나라이지만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세상에 갓 태여난 탁아소어린이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800만명이



훨씬 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며 교육하고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새 세대들을 당과 국가에서 맡아 돈 한푼 받지 않고 무료로 키우며 공부시키고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당, 국가기관에서 사업하고있는 일군들은 거의 모두가 우리 제도하에서 주체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나라에는 전후까지만 하여도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지 못하고 사대주의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람들은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민들은 주체사상이야말로 우리 민족과 인민을 위한 사상이라는것을 실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잘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사대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민족적자부심을 높여주는것과 함께 우리 인민들이 행복하고 보람찬 사회주의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나가도록 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누구나 다 먹고 입고 쓰고 살수 있는 권리와 물질적조건들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에 따라 집단과 자신을 위한 창조적로동에 적극 참가하고있으며 로동에 따르는 분배와 국가로부터의 많은 추가적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아직 우리 나라의 경제기술이 발전된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의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찾아볼수 없으며 누구나 할것없이 모두다 생활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고르롭게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창조한 물질적재부가 모두 인민들자신의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돌려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되면 진척될수록 인민들의 물질생활이 끊임없이 풍족해지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무상치료제와 여러가지 공산주의적시책에 의하여 건강과 장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적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는데서도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으며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누리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모두가 화목하게 살고있으며 온갖 사회악에서 벗어나 삶에 대한 긍지와 희망에 넘쳐 생활하고있습니다. 언제인가 우리 나라에 왔던 구라파 어느 한 나라 당대표단성원들이 우리 나라 농촌마을에 찾아가본 일이 있는데 그들이 현지에 도착한 때는 한창 일하는 시간이여서 집에는 거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포전에 나가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탁아소, 유치원과 학교에 갔으니 집들에 사람이 있을리 없었습니다. 빈집들에는 쇠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집을 지키는 사람이 없이 이렇게 비워두어도 일없는가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들에게 우리 나라에는 남의것을 훔치는 사람이 없기때문에 문에 쇠를 채우지 않고 집을 비워두어도 아무 일이 없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무척 놀라와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언제나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할데 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일부 경제일군들이 묘향산과 금강산에 금이 많이 매장되여있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금을 캐겠다고 하는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금을 몇톤 얻자고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파괴하겠는가, 우리 나라에는 금이 매장되여있는곳이 많은것만큼 다른데 가서 금을 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묘향산과 금강산에 근로자들과 학생소년들을 위한 훌륭한 휴양소와 야영소들을 짓도록 하였으며 명승지들을 인민의 문화휴식터로 더 잘 꾸리게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학생소년들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금강산과 묘향산에 가서 즐거운 야영생활을 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 남조선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선생도 알다싶이 독일이 분렬되여있는것처럼 우리 나라도 외세에 의하여 분렬되여있습니다. 분렬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최대의 비극이 아닐수 없습니다.

미국은 남조선땅을 30여년동안 강점하고있지만 남조선 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을 굴복시킬수는 없습니다. 지금 남조선청년학생들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반대하며 남조선의 군사파쑈통치체제를 뒤집어엎기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고있습니다. 어제도 십여만명의 남조선청년학생들이 떨쳐나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여 대대적인 시위투쟁을 벌렸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남조선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는데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은 사회의 민주화를 지향하는 그들의 절박한 요구에 의하여 시작된것이기때문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는것으로써는 결코 청년학생들의 투쟁을 멈춰세울수 없습니다.

어떤 물체든지 힘을 가하면 그만큼 반작용이 생기듯이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는 반드시 인민들의 반항이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력사에 의해 확증된 진리입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수천명의 애국적인민들이 갇혀있는 감옥에다 이번에 또다시 수많은 남조선청년학생들을 가두어넣고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근본문제를 해결할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저들의 반인민적, 반통일적 행위를 세계의 면전에서 더욱더 드러낼뿐입니다.

남조선사회의 민주화가 실현되면 우리 나라의 통일이 빨리 될수 있습니다. 선생이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하는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것입니다.

선생이 세계반동들을 반대하는 글을 많이 쓰다보니 그들로부터 압력과 비난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대신에 선생은 인민대중의 지지를 받기때문에 잃는것보다 얻는것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으면 언제나 반동들의 미움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반동들이 선생을 감옥에 가두어넣지는 못할것입니다.

나는 선생과 다시 만나게 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무사히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5. 단합의 리념아래

≪세기와 더불어≫ 제2권 제6장 시련의 해 중

세기와 더불어



…

몽강을 거쳐 량강구에 도착한 우리는 거기서 놀라운 정보를 입수하였다. 무송지방에 은거하고 있던 20명가량의 독립군이 70-80명으로 구성된 중국인민무장부대와 합세하여 우리 부대를 습격하고 무장을 해제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음모의 기안자가 바로 국민부산하의 독립군이었다. 그들은 몽강에서부터 량강구방향으로 이동하는 반일인민유격대의 행군로정을 내탐한 다음 중국인반일부대에 우리 부대가 공산군주력부대라는 것을 련락하였다. 독립군은 중국인반일부대와 함께 반일인민유격대가 통과하게 될 마을을 미리 차지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에게 이 정보를 제공한 것은 량강구에 있는 공청원들이였다. 그곳에는 내가 아는 조직원들과 청년들이 많았다. 우리가 량강구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나에게 이 내막을 알려주었다.

유격대원들속에서 국민부테로분자들을 타도하고 최창걸의 복수를 하자는 목소리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것이 바로 그때였다. 류하의 청년들이 국민부의 테로분자들을 요정내고 남만청총대회때 괴모산골짜기에서 학살된 6렬사의 원쑤, 최창걸의 원쑤를 갚아야 한다고 부르짖을 때만 하여도 나와 목소리를 합쳐 그들을 달래던 동무들까지 지휘부로 찾아와 우리의 자제력에도 한도가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한번 싸움을 본때있게 하여 버릇을 떼주자고 하였다. 그런데 버릇을 떼준다는 것도 말은 쉽지만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우선 력량상으로 볼 때에도 상대는 우리보다 더 우세하였다.

그러나 이런 대비는 큰 문제로 되지 않았다. 제일 난처한 것은 상대가 적아닌 적이라는 것이었다. 항일구국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무장부대들끼리 서로 맞총질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1930년대초기의 혼란된 시국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만화라고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었다. 반일인민유격대와 독립군이 합작하여 반일인민유격대를 공격한다는 것도 괴이한 일이었다.

싸움을 하면 물론 승패는 갈라질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류의 싸움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다 도덕적인 규탄을 면치 못하는 법이었다. 승자는 목에 걸어줄 월계관도 있을 수 없거니와 패자의 희생을 동정할 눈물도 있을 수가 없었다.

중국인민무장부대를 잘못 건드려놓으면 우리의 활동에 수습할 수 없는 난관이 조성될 수 있었다. 모처럼 성사된 구국군과의 공동전선은 깨여지고 우리는 다시 남의 집 뒤골방에서 무기소제나 하며 세월을 보내던 초기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 독립군부대를 치는 것도 그만 못지 않은 악후과를 낳을 수 있었다. 공산군부대가 독립군부대를 치면 인민이 우리를 외면하고 랭대할 것이였다. 반공분자들은 좋은 때를 만났다고 공산주의자들을 헐뜯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아니였다. 반일인민유격대와 독립군이 서로 총구를 마주대고 혈전을 벌인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독립군은 송화강 건너편에서 그런 혈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1932년 여름을 생각하면 그때의 일이 제일먼저 떠오른다. 그때 나는 밤잠도 자지 못하고 이 맹랑한 문제를 민족단합의 경륜과 항일구국의 대의에 맞게 처리할 방도를 찾느라고 마음을 썩이였다. 그 일때문에 십년은 감수했다고 말할 수 있다.

공동의 적인 일본군과는 싸움 한번 변변히 해보지 못하면서도 동족인 우리하고는 금수도 낯을 붉힐 수치스러운 분노와 혐오를 금할 수 없었다. 지휘관들과 상론해보니 그들도 다같이 노기충천하여 국민부파시스트들에게 철추를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아 떠들었다.

≪다시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단단히 버르장머리를 떼줍시다. 그들이 죽어서 지하에 가더라도 두번다시 손에 동족의 피를 묻히는 일이 없도록 혼쌀을 내줍시다.≫ 차광수는 눈에 불꽃을 튕기며 국민부의 손에 쓰러진 동지들의 원한을 갚을 때가 왔다고 부르짖었다.

그러고 보면 그 당시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무장부대들은 어느것이나 다 적인 셈이었다. 독립군도 적이고 구국군도 적이고 마적도 홍창회도 대도회도 다 적이었다. 반일인민유격대가 이런 역경에 처하게 된 것은 우리 부대가 구국군의 별동대라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류본초와 같은 증인이 없는데 있었다. 우리는 류본초와 같이 유력한 증인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언제나 사면팔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걸머지고 있었다.

우리가 통화에 갔다오는 사이 우사령부대는 안도에서 철수하여 왕덕림부대와 함께 녕안현일대로 깊



세기와 더불어

숙이 퇴각하였다. 안도는 자유지대로 남아있었다. 자위군은 싸움을 크게 해보지도 못하고 일본군에 속속 투항하였다. 그 당시의 자위군의 일부는 벌써 반만항일의 구호를 내던지고 일본군고문들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는 반동군대로 되었다. 중국인반일부대가 공산군주력군으로 알려진 우리 부대를 감히 소멸하려고 결심한 것은 그들이 일본군의 지휘를 받는 반동군대로 전락되었기 때문이었다.

국민부의 반공선전에 청맹과니가 되다싶이한 독립군의 잔당은 우리에 대한 진속도 모르면서 반동화된 반일부대를 끼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놓고 나는 심각한 사색을 거듭했다. 상대가 아무리 토비화되고 우경화된 군사집단이라고 하여도 한피줄을 나눈 동족이고 또 구국투쟁에 몸을 바치고 있던 사람들인 것만큼 우리로서는 군사적 방법에 의한 보복이나 제재를 추구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하나 그들을 정치적 방법으로 설복하여야 하였다. 우리는 이토록 반일통일전선을 절대화하였다.

이렇게 되어 박훈을 책임자로 하는 몇동무가 독립군이 머물고 있은 이도백하로 떠나갔다.

≪박훈동무, 오늘은 총대신 입이 동무의 무기요, 총은 한방도 쏘지 말고 입으로써 독립군들을 설복해야 하오. 동무는 말주변도 좋고 인상도 씨원씨원한 사람이니 능히 그들을 감화시켜 미연에 족전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요. 그 어떤 경우에도 무력행사는 절대금물임을 꼭 명심해야 하오. 우리가 여기서 총성을 한방만 울리면 민족주의자들과의 통일전선을 끝장이 날수 있소. 어떻소? 동무의 성미에 맞지 않는 과업인데 꽤 해낼 수 있겠소?≫내가 이렇게 묻자 박훈은 웃으면서 머리를 긁적거리었다.

≪까다로운 과업이긴 하지만 해보겠소.≫

나는 박훈을 떠나보낸 다음에도 송화강반을 오래도록 거닐었다. 오늘밤만을 제발 총성이 울리지 말았으면 하고 우려와 걱정도 없지 않았다.

물론 그는 능력있는 선동가였고 수완가였다. 그러나 일단 성만 나면 앞뒤를 가리지 않는 그의 곰같은 성미가 나로 하여금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박훈의 그런 약점을 알면서도 그를 독립군의 진영으로 서슴없이 들여보낸 것은 우리 부대에 그를 릉가할만한 활동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이 분야에서 박훈과 견줄수 있는 인물은 차광수였다. 정황을 보면 마땅히 그가 한몫할 때였다. 그러나 차광수는 최창걸의 희생에 대한 소식을 접한 때부터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자기를 다잡지 못하고 있었다.

(박훈이, 부디 성공하고 돌아오오!)

나는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거듭 뇌이면서 이도백하쪽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다행히도 내가 우려하던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독립군은 애국력량의 단합을 절절히 호소하는 우리 동무들의 해설에 감화되었다. 그들은 저들 상층부의 처사에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도 행동에는 옮기지못하던 우유부단한 태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무장을 바치고 우리 반일인민유격대오에서 같이 싸울 것을 흔연히 결의해 나섰다.

독립군의 상층은 아직 우리와의 통합을 달가와하지 않았지만 하층병사들은 대결이 아니라 합작을 하고 힘을 합쳐 같이 싸워야 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기꺼이 우리와 손을 잡게 되었다. 이것은 독립군과의 통합의 첫시작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또하나의 어려운 고비를 무난하게 넘기였다. 량세봉과의 결렬에다가 최창걸의 희생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덧붙여져 국민부에 대한 증오와 원한이 참을 수 없게 되살아오르던 그때 우리가 민족대단합의 경륜을 위해 20대의 젊은이들로서는 쉽지않은 도량과 인내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었다. 만일 그때 우리가 리성을 잃고 복수감에 사로잡혀 국민부를 타도하였거나 독립군대원들과 무장대결을 하였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떳떳한 마음으로 후대들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할 것이다. 300여명에 달하는 량사령의 부하들이 엄동설한에 합작의 기발을 들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찾아오는 력사적 화폭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세상에 애국애족처럼 위대하고 순결하고 신성한 감정은 없다.

민족단합정신은 애국애족의 감정가운데서도 그 정수를 이루는 최고의 넋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민족해방을 위해 출범한 그 첫 기슭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나 민족단합의 리념을 변함없이 소중하게 간직해오고 있으며 그것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랑의 열풍

박정서 /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0월 25일~27일



서울대의 한 역사학교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관해 서술을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은 이 세상의 모든 위인들의 학식과 군사지략, 인덕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문무인덕을 지니시고 그 모든 것을 조국과 민족, 인류의 자주성을 위해 바쳐오신 희세의 위인이시다. 그분께서는 그리스신화의 신들이 인간에게 주었다는 아폴론의 광명, 프로메테우스의 불, 데메트르의 땅과 먹을 것, 아테네의 지혜, 아프로디테의 사랑과 아름다움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이민위천의 세상을 현실로 안겨주셨다. 나는 신을 믿지 않지만 장군님만은 우리 민족을 위해 하늘의 태양이 인간세계의 태양으로 하강하신 분이시라고 생각한다.≫

네, 사랑과 믿음으로 천하를 얻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상을 그대로 반영한 글이라고 하겠는데요. 장군님의 그 거룩하고 위대하신 인품과 덕망에 관한 사례는 여러분들께서도 TV를 통해 많이 알고 있는거죠. 그럼 이 시간엔 먼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러시아방문기간 광활한 대지위에 일으키신 ≪사랑의 열풍≫에 관해 쓴 박정서씨의 글을 이철씨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정일영수의 러시아방문이 있은 때로부터 2달이 지나갔다. 무릇 세월은 역사적 사변들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일쑤이다. 그러나 **김정일**영수께서 광활한 러시아대륙위에 일으키신 거대한 열풍은 지금도 행성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대학가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나는 많은 생각을 안고 영수의 러시아방문 일거일동을 주시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각도 이남 천지뿐 아니라 전 세계를 진동시키고 있는 영수의 러시아방문충격을 목격하면서 가슴 터지는 희열을 맛보고 있다.

아마 이런 기쁨과 자긍이 나로 하여금 펜을 들게 했다고 할까. 21세기의 찬란한 태양상을 한껏 외치고 싶은 심정이 둔필이라는 미숙함을 안 고려한채 서둘러 펜을 달리게 한다.

나는 **김정일**영수의 러시아방문을 ≪사랑의 열풍≫이라고 명명하고 싶다. 영수의 러시아방문이야 말로 사랑으로 시작되고 사랑으로 끝난 사랑의 대장정이였다는 것이 내 견해이다.

사랑은 인류가 수천년동안 품어온 염원이였다. 아마 그것은 사랑없이는 못사는 인간고유의 본성에서부터 흘러나온 것이였으리라. 사람들이 태양을 그처럼 숭배하는 것도 결국은 만물을 품어주고 덮여주는 따뜻한 사랑때문일 것이다. 자연계의 태양이 빛과 열로 만물을 품어주는 어머니라면 **김정일**영수는 고결하고 헌신적인 인간애로 전인류를 품에 안아주시는 위대한 어버이이시다.

나는 영수께서 진행하신 러시아방문을 통해 그것을 피부로 절감했다. 영수의 러시아방문을 주목하면서 내가 제일 깊이 느낀 것은 영수의 사랑이 동서고금에 전무한 고결과 충정을 핵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수께서는 러시아방문을 열차로 진행하셨다. 그 거리는 5만여리, 시일은 20여일이나 달한다. 다른 나라 정상들은 엄두조차 낼수 없는 마라톤열차행군이 아닐수 없다.



인류외교사는 정상들의 열차외국방문에 대해 단편적이나마 기록하고 있지만 영수처럼 최장기방문을 진행하신 사례는 알지 못한다.

의학계에서는 사람이 열차를 타서 3, 4일이 지나면 심신이 극도로 피로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영수께서는 러시아방문의 전기간 **김일성**주석께서 생전에 지나가신 대외활동과 똑같이 열차방문을 하셨으니 그 지극한 충정에 지금도 가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다.

영수의 사랑은 무한히 헌신적이다. 예로부터 사랑을 주고 바치는 마음이라 했다. 그래서 인류사에는 사랑에 대한 전설이 그리도 많은줄 안다. 부피두툼한 역사의 갈피엔 아프리카의 찌는 듯한 열대림속에서 그곳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병마와의 싸움에 자기의 한생을 바친 의사들도 기록되어 있고 인류의 진보와 문명을 위해 화형대 위에 혼연히 올라선 과학자의 이름도 새겨져 있다.

그러나 그들의 헌신성에 감복하면서도 늘상 갈증을 느껴온 것이 사랑의 역사였다. **김정일**영수의 러시아방문은 참된 사랑을 갈구해온 인류에게 행복감을 안겨준 헌신의 장정이였다. 러시아방문기간 영수께서 타신 열차는 문자 그대로 달리는 집무실이였다고 한다. 그분께서는 초인간적인 정력과 견인불발의 의지로 낮과 밤이 따로없이 활동하셨다.

수없이 많은 인사들을 만나 러시아의 실태며 국제정세를 요해하시고 귀중한 가르치심도 주셨다. 그들속에는 러시아의 유명한 정치가도 있고 기업인도 있다. 명망높은 사회계 인사들이며 유명한 학자, 발명가도 있다. 영수께서는 이런 불면불휴의 활동으로 러시아방문 20여일의 나날에 무려 400여시간이나 일하셨다고 한다.

7, 8월이면 국가정상들이 휴양지나 관광지로 피서가는 것이 상례이다. 하지만 영수께서는 삼복의 무더운 나날에 외국방문의 길을 떠나시였다. 그리고 달리는 열차위에서 낮과 밤이 따로없이 일하셨으니 그 헌신에 무슨 말로 감사하랴.

영수의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한 사랑은 가장 진실한 감정에서 나온다. 영수의 사랑이 영원한 것은 인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수의 세계관은 인간사랑이 움트고 자랄수 있는 자양분이다. 영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를 사람으로 보신다. 그래서 민중중심의 사랑의 정치를 펼치시는 영수이시다.

참된 사랑은 시련속에서 알아본다고 한다. 영수께서는 이북에서 고난의 행군을 하던 시기에 사랑의 정사를 어머니처럼 이끌어오셨다. 이북민중들이 남들같으면 열백번 더 쓰러져 일어나지도 못할 난국을 타개할수 있은 것은 명실공히 **김정일**영수의 사랑의 정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세인들은 영수의 러시아방문에서 그 사랑의 정치가 얼마나 뜨겁고 무한한가를 피부로 절감했다.

영수께서는 순결한 예의와 의리심으로 붉은 광장에 있는 레닌묘를 찾으시고 경의를 표하시였다. 러시아의 도시를 찾을 때마다 무명전사묘에 들리시어 그들의 업적을 기리시었고 방문록엔 친필도 남기신 영수이시다. 전쟁노병들을 만나시어서는 장수의 격려도 해주시었다.

TV화면을 통해 이 장면을 목격한 러시아민중들은 모두 감격의 눈굽을 훔쳤다고 한다. 그러니 영수의 러시아방문이야말로 그분의 사랑의 햇발이 러시아의 광활한 대지위로 빗발쳐간 태양의 일출이라 하겠다. **김정일**식 사랑의 정치가 눈부시게 선보이며 세계에 등장한 장엄한 화폭이라 하겠다.

사랑의 열풍은 이땅위에 민심의 거대한 회오리를 일으키고 있다. 경향각지에서 영수를 칭송하는 목소리가 축제의 불꽃마냥 터져오른다. 이 감동적인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는 가슴부푸는 심정 억제할수 없다.

무릇 참 위인은 사랑으로 역사를 만든다고 한다. 자연의 태양보다 비할바없이 뜨겁고 고결하고 영원한 영수의 사랑이 있음으로 해서 새 세기의 참된 역사는 기필코 창조될 것이다. 그 역사는 지배와 예속이 없는 세상, 자주와 평등, 풍요와 번영이 화원처럼 만발한 인류의 이상향이다. 그 속에 통일강성대국이 된 내 조국의 **도 자리하고 있다.

민족과 인류의 영원한 태양 **김정일**영수를 천세만세 길이 받들어 모시자.

얼마전 미국대통령 부시가 또다시 분수없이 우리를 걸고 들었다. 그는 아페크수뇌자회의를 앞두고 한 기자회견에서 마치 미국이 조미대화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으며 지어는 우리의 최고지도부에 대해 ≪지나치게 의심하고 비밀스럽다≫느니, ≪약속을 이행하기를 거부한다≫느니, ≪도대체 이해할수 없는 인물≫이라느니 하는 험담까지 늘어놓았다.

부시의 발언은 그 정치적 동기는 둘째치고 우선 일명 ≪초대국≫의 대통령이라는 체모에 어울리지 않는 경솔한 언동이 아닐수 없다.

한 나라의 국가수반이라는 사람이 면식도 없는 다른 나라의 지도자에 대해 무턱대고 이러쿵저러쿵 시비부터 하는 것 자체가 초보적인 외교 예의를 떠난 몰상식한 처사이다.

대통령의 권좌에 올라 앉자마자 ≪북조선지도자에 대해 회의심을 품고 있다≫고 의심보따리를 먼저 풀어놓은 사람도 부시이고 진행중에 있던 조미대화를 모두 중단시켜 버린 것도 다름 아닌 부시행정부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며 그것도 오래전이 아닌 불과 몇달전의 일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그러한 그가 자기의 처신에 대해서는 돌이켜 보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더러 ≪의심이 많다≫느니, ≪약속을 했으면 자기 몫을 해야 한다≫느니 하며 훈시하려든 것은 그야말로 제 코도 못 씻는 주제에 남을 넘겨다 보는 가소로운 처사가 아닐수 없다.

국가수반은 고사하고 일개 정치인의 체모마저 갖추지 못한 이러한 무분별한 처사를 두고 우리가 과연 미국이 귀맛 좋은 소리를 한들 믿을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모처럼 눈석이를 맞이하였던 조미관계가 다시 얼어 붙고 대화마저 파탄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부시와 그 행정부의 뿌리 깊은 대조선적대시 관념때문이다.

클린턴행정부 말기 조미사이에는 대화가 활발해지고 적대관계의 종식을 확약한 공동코뮤니케와 테러를 반대하는 공동성명도 발표되었었다.

두 나라 지도자들사이에는 특사방문과 친서들이 교환되고 최고위급상봉이 일정에 오르는 정도로 이해와 신뢰가 조성되였었다.

더욱이 클린턴대통령의 평양방문일정에는 미국이 ≪위협≫으로 보고 있는 우리의 미사일문제를 서로의 이익에 맞게 해결하려는 우리의 중대결단에 대한 토의가 핵심사항으로 포함되여 있었다.

그러나 새 미행정부는 정권을 인계받기 바쁘게 이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었다.

세계제패를 위한 ≪미사일방위체계≫의 수립을 우선시한 새 행정부로서는 우리의 미사일문제가 조기해결되는 것이 불편했으며 오히려 ≪불량배국가≫라는 적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필요했던 것이다.

이토록 계승성이라고는 꼬물만치도 없는 정권에 대해 신의를 가질수 없다는 것은 이번 부시의 망언이 더욱더 실증해 주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지난 6월에 내놓은 조미대화의 ≪재개 제안≫ 역시 본질에 있어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무장해제시키겠다는 강도적 요구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적대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교전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상용무력을 축감하라는 것은 결국 대화상대방의 우려를 해소 해주기는커녕 도저히 접수되지 못할 것이 뻔한 문제를 들고 나와 대화자체를 성립시키지 않으려는 올가미에 불과하다.

미행정부는 말끝마다 미군을 남조선에 영구주둔시키겠다고 호언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아프가니스탄전쟁을 구실로 남조선주둔 미군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더러 일방적으로 상용무력을 철수시켜 평화의지를 보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기전에 무지와 파렴치의 극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부시행정부의 이러한 적대적인 대조선정책은 역사적인 북남최고위급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에 의하여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관계의 완화분위기까지 일거에 냉각시켜 버렸다.

미국은 남조선을 ≪동맹국≫과 ≪공조≫라는 쇠사슬로 얽어 매여 북남관계를 저들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복종시켜 놓고 남조선으로 하여금 북과 남이 협의해야 할 민족내부문제마저 먼저 미국의 승인을 받도록 복잡한 공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북남공동선언의 이행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국의 반≪테러≫전쟁을 빙자하여 새로운 무장장비들이 대량적으로 반입되고 있으며 전역에 ≪비상경계령≫이 선포되는 등 전시에 가까운 살벌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에 편승하여 아프가니스탄전쟁에 동참한 남조선의 위험한 정세에 따르는 신변안전상 문제로 다른 나라 국가수반들의 서울방문이 취소되고 있으며 북남사이에 계획되였던 흩어진 가족들의 고향방문마저 부득이하게 일시 연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부시행정부에 의하여 조성되고 있는 정세가 바로 북남사이에 합의된 사항들의 이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미 명백히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자체를 반대하지 않으며 미국과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입장이다.

아무리 미국이라고 해도 외교정책에서는 계승성과 일관성이 어느정도 보존되는 것이 상식인데 부시행정부에 와서 그렇게 안되는 것이 의문이다.

우리의 바지를 벗기기 위한 상용무력축감문제와 같은 것이 자주정책을 실시하는 나라에 통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망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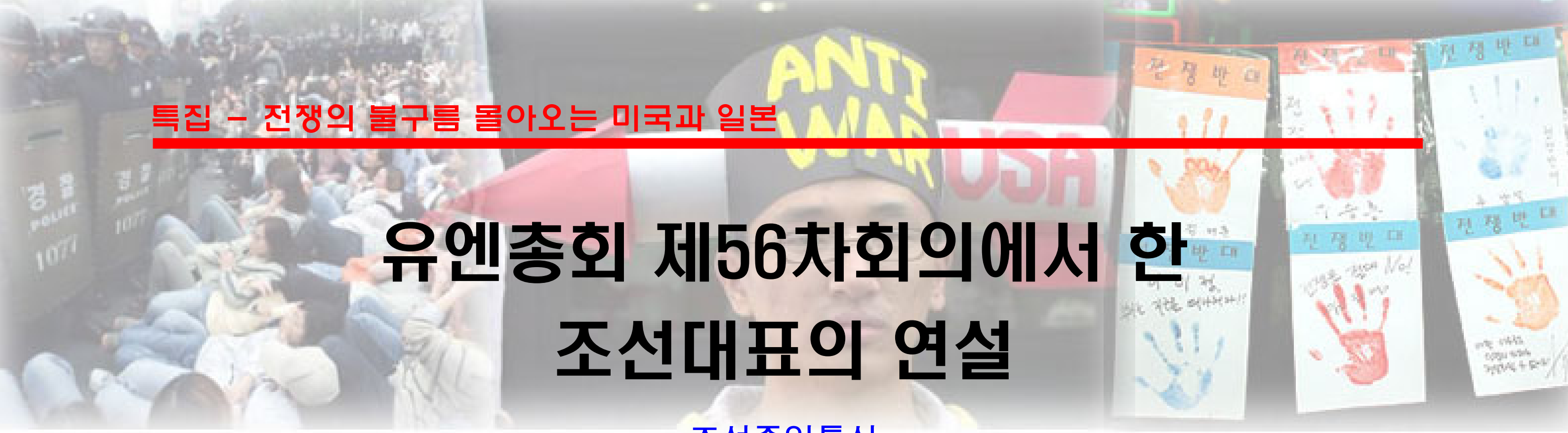
조미대화가 이미 두 나라정부사이에 합의된 기본합의문과 공동코뮤니케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로부터 논의하는 대화로 되여야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공정으로 될것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신의있는 조미대화의 재개는 부시행정부가 최소한 클린턴행정부의 마지막시기에 취했던 입장수준에 도달해야 논의될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주체90(2001)년 10월 23일

평양





유엔총회 제56차회의에서 한 조선대표의 연설

조선중앙통신

≪**평양** 10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 17일 유엔총회 제56차회의 1위원회 회의에서 조선대표가 연설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지난해 새 천년기유엔수뇌자회의와 유엔총회에서 유엔성원국들이 새 세기의 안보상황에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면서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부합되게 지구상에 공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수립할 결의를 일치하게 표명한데 언급하고 그러나 오늘 안보상황은 오히려 인류에게 락관보다 위구심을 더해 주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주요 핵무기 소유국들의 핵무기축감공약은 어느 하나도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으며 핵군축과 핵무기불사용담보를 요구하는 발전도상나라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있다.

세계적인 군사비지출액은 해마다 무섭게 치달아 오르고 군비경쟁은 더욱 로골화되고 있으며 군축회의는 아무런 진전없이 공회전만 하고 있다.

오늘 세계안보에 대한 주되는 도전의 하나는 미싸일방위체계 수립시도이다.

≪**별세계전쟁**≫**의 재판인** 미싸일방위체계가 추구하는 목적은 명백히 절대적인 군사전략적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세계를 제패하자는데 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군비경쟁을 유발시키고 무기통제와 핵전파방지분야의 모든 국제협정의 토대를 허물며 세계의 전략적 안정을 파괴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미싸일방위체계 수립을 강행하기 위한 구실로 우리의 ≪미싸일위협≫**을 꺼들고 있다.**

미싸일방위체계가 실지 누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

미국이 미싸일방위체계 수립의 구실로 우리를 걸고들고 있는 것은 우리에 대한 고의적이고 로골적인 도전이다.

미국이 미싸일방위체계 수립의 구실로 우리를 계속 걸고들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에 대응하여 강경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며 국제관계에서 유엔헌장의 원칙을 무시하고 전횡을 일삼는것을 묵인할 수 없다.

국제안보 특히 동북아시아의 안보상황에 또 하나의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는 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과 군국주의부활시도이다.

지난 8월 일본은 대륙간탄도미싸일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대형운반로케트 ≪h-2a≫**를** 시험발사하였다. 일본은 이 로케트가 ≪군사적목적에 전용될수 있다≫는데 대하여 숨기지 않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는 ≪자위대≫의 자유로운 해외무력간섭의 길을 열어 놓기 위한 목적 밑에 ≪자위대법≫**을 수정하기 위한 열띤** 론쟁이 벌어 지고 있다.

수만개의 핵폭탄을 순간에 제조할수 있는 방대한 량의 플루토니움과 고도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대형운반로케트시험발사를 진행하고 있고 ≪자위대법≫**수정놀음을 벌리고 있는 움직임들은 일본이** 군국화와 군사대국화의 길로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주목되는것은 일본이 미국과 공조하여 우리의 ≪미싸일위협≫을 **운운하면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속 끈질기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당국자들은 이번 대형운반로케트시험발사도 ≪북조선의 미싸일에 대응한 것≫이라고 내놓고 말하고 있다.

우리의 미싸일 강령은 평화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나라들에는 어떠한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 미국과 일본은 위성발사를 일시 중지하기로 한 우리의 립장을 오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일본은 옛 야망을 꿈꾸면서 감행하고 있는 무분별한 행동이 수백배의 값비싼 대가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누구보다도 평화를 귀중히 여기고 있으며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가 적대세력들의 힘에 의한 압살시도에 대처하여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키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가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바로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정치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선군정치는 자체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평화도 보장하면서 경제건설도 힘 있게 밀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우리 식의 독특한 정치방식이다.

우리 인민이 그처럼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고 있는 바로 여기에 선군정치의 위대한 생활력이 있다.

군축 특히 핵군축을 실현하며 공고하고 항구적인 국제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랭전시기의 사고방식에 기초한 힘의 정책과 간섭행위를 종식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제안보분야의 모든 불안정한 요인들은 바로 일방적인 힘의 정책을 추구하고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는 랭전시기의 사고방식에서 산생되고 있다.

조선반도에 항시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불안정한 정세도 바로 적대세력들의 랭전정책의 결과이다.

평화는 어느 일방의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어느 일방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주요핵소유국들은 핵군축공약을 실천에 옮기며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군축 및 국제안전분야에서 유엔의 중심적 역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유엔은 세계적인 모든 군축문제들을 유엔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군축에서 기본문제인 핵군축과정을 촉진시키는데 주되는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군축에 관한 제4차 유엔총회특별회의 소집문제가 속히 합의되기를 희망한다.

끝으로 그는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리행문제에 언급하면서 1990년대 초에 우리 나라를 압살하기 위한 목적으로부터 발생된 ≪핵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우리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고 강조하고 조미사이의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조미기본합의문이 리행되면 담보협정리행문제는 자연히 해결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부쉬행정부는 저들의 망발에 대하여 깊이 사죄하여야 한다

민주조선

≪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호 ≪민주조선≫은 얼마 전 부쉬가 미국이 조미대화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응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심히 왜곡해 나섰고 지어 우리 인민이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문제에 대해서까지 감히 이러쿵저러쿵하는 망발도 꺼리낌없이 한 것을 규탄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부쉬의 언동은 한 나라의 국가수반은 커녕 일개 정치가로서 초보적인 례의도 상식도 없는 무뢰한의 짓으로서 매우 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조미관계가 지금처럼 다시 랭랭해 지고 조미대화가 파탄된 것은 전적으로 부쉬행정부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부쉬행정부가 지난 6월에 내놓은 조미대화의 ≪재개제안≫이라는 것도 본질에 있어서 대화재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화파탄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려는 불순한 목적을 노린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우리는 미국이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계속 추구하면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고 꾀하고 있는 조건에서는 그 어떤 대화와 관계개선에 대해서도 흥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정치적 지각이라고는 꼬물도 없는 부쉬행정부가 감히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불순한 언동까지 늘어놓은데 대해 우리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우리 공화국은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혼연일체를 이룬 자주적인 나라이다. 그 누가 이를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하는데 대해서는 추호의 용서를 모르는 우리 인민이며 군대이다.

우리 인민과 군대는 부쉬의 망발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해 하고 있으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 내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부쉬행정부는 저들의 망발에 대하여 조선인민 앞에 깊이 사죄하여야 하며 대조선립장을 적어도 선행정부가 마지막시기에 취했던 수준에라도 가져다 대야 한다.

그렇게 될 때라야 조미대화의 공정한 분위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금후 부쉬행정부의 동향을 주시할 것이다.

대화재개와 상용무력축감문제를 운운하는 모순적인 주장

조선중앙통신 론평

≪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조미대화재개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이 극히 모순적이고 파렴치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23일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하바드는 한 토론회에서 미국이 우리와 전제조건없이 대화에 응할 준비가 되여 있다고 하면서도 또다시 우리의 상용무력축감문제를 운운해 나서는 모순된 립장을 취하였다. 그 리유인즉 우리의 상용무력이 남조선강점 미군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계획적인 음모인가.

음모라고밖에 달리는 평할 수 없다.

우리의 상용무력은 철두철미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한 전쟁책동에 대처하여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인 수단이다.

교전상태에 있는 국가간에 그것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자위적무력축감문제를 협상의제로 들고 나오는 것은 대화재개를 ≪제의≫했다는 명분이나 세워 놓고 대화를 성립시키지 않기 위해 도발을 걸어 오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조미대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국제사회에 심어 주자는 것이다.

≪초대국≫이라 자처하는 미국의 체모에도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도 저급한 방식의 음모이다.

우리는 미국과도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립장이지만 무장해제를 노린 대화에까지 응하리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다.

명백히 하건대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감히 전쟁을 도발해 온다면 일격에 섬멸해 버릴 수 있게 자위적 국방력을 더욱 강화하여 나갈 것이다.

미국의 주장대로 우리의 상용무력이 남조선강점 미군에게 그토록 위협이 된다면 미군이 남조선에서 물러가면 그만이다. 남조선 강점 미군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안정의 암이라는 것은 지난 반세기의 력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남의 나라 절반 땅을 강점하고 있는 저들의 침략무력은 ≪억제력≫이고 우리의 자위적 무력은 ≪위협≫이 된다는 론리야말로 전형적인 미국식 깡패론리이다.

미국은 우리가 그런 식의 깡패론리를 받아들일 상대가 아니라는 것부터 깨달아야 한다.

조미대화는 합의사항들을 실천하는 문제들부터 론의해야 한다

로동신문



≪평양 10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29일부는 최근 부쉬가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은 소리를 늘어놓았는가 하면 우리의 신경을 극도로 자극하며 격분을 고도로 격발시키는 괴이한 험담을 함부로 한 것을 규탄하였다.

부쉬는 최근에 있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 ≪아페크≫ 수뇌자회의를 앞두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란데서 미국이 조미대화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듯이 사실을 왜곡하였으며 그 무슨 ≪의심≫이 어떻소 ≪약속리행≫이 어떻소 하고 감히 입에 담지 못할 엄중한 망발을 줴쳤다.

론평의 필자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말과 행동이 신중하고 진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부쉬가 ≪초대국≫의 대통령의 직분과 체모에 어울리지 않게 망탕 험담을 늘어놓은 것은 미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는 것으로 된다.

확실히 부쉬는 지각이 없고 무식하며 초보적인 외교례의도 지킬 줄 모르고 외교적 수완이 없는 무능하고 무례한 대통령이다. 이런 인물이 미국의 최고권력의 자리에 앉아 국가정치를 하니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는가.

부쉬가 집권 후 지금까지 우리에 대하여 취한 자기의 부당한 태도와 온당치 못한 처신에 대하여 돌이켜 보고 반성할 대신 도리여 우리더러 ≪의심이 간다≫느니 ≪자기 몫을 해야 한다≫느니 하며 훈시질을 하려하는 것은 가소롭고 어처구니없는 처사이다.

부쉬 정권이 들고 나오는 ≪대화재개제안≫과 우리의 ≪상용무력축감≫요구는 본질상 우리의 무장해제를 노린 것이며 조미대화자체가 성립되지 못하게 하려는 술책이다. 부쉬팀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군사적 공격작전에 의한 그 무슨 ≪전력공백≫을 구실로 남조선강점 미군전력을 대폭 증강하면서 ≪비상경계≫소동을 벌리고 있는 것은 반공화국 군사적 압력과 전쟁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책동으로서 우리에 대한 그들의 강경압살정책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데 대한 뚜렷한 실증으로 된다.

북남최고위급상봉과 6.15북남공동선언에 의해 모처럼 마련되였던 북남사이의 완화 분위기를 랭각상태에 빠뜨린 것도 부쉬 정권이다.

현실은 바로 이렇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의 부쉬 정권에 있다.

부쉬가 저들의 범죄적 책임은 보따리에 감싸 장롱 속에 깊숙이 처박아 넣고 자기 할 바를 성실히 다하는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들며 사실과 전혀 맞지 않은 소리, 지어 입밖에 감히 내지 못할 극도로 불손한 악담을 마구 내뱉는 것은 정치망나니들이나 할 짓이다.

조미관계문제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 립장은 변함이 없다.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자체를 도외시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비정상적인 조미적대관계, 교전관계를 끝장내고 관계발전을 도모해 나가자는 것이다.

조미관계가 개선되는 것은 좋은 일이지 나쁜 일이 아니다. 우리의 립장은 명백하며 일관하다. 문제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

미국이 우리와 대화를 하려면 그에 대한 인식과 립장부터 바로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조미대화를 어느 일방에게 덕을 주는 것으로 여기지 말며 정치적 줄타기놀음에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조미대화를 기본합의문과 공동콤뮤니케의 사항들을 실천에 옮기는 문제들부터 론의하는 대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부쉬 정권이 최소한 클린톤 정권 말기의 립장수준에 도달하여야 신의있는 조미대화재개문제가 론의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철저히 자주의 원칙에서 조미관계문제를 대하고 다루어 나갈 것이며 그 어떤 사태와 정세변화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출 것이다.

북, ≪조미대화는 기본합의, 공동꼬뮤니케 실천부터≫

미국과 반테러 논의, CSCAP 신뢰안보구축 작업반회의서



부시정부 들어 북–미 고위급 대화가 열리지 않는 가운데 회담 의제들 둘러싼 양국간 상이한 입장이 대화 재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부시정부는 지난 6월 6일 대통령이 대북정책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핵, 미사일, 재래식 군사력 등을 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이 크게 반발하자 미국은 위 세 가지 문제는 미국의 관심사일뿐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한 발 물러섰다.

북한은 그럼에도 부시정부가 세 가지 문제에 집착하면서 대화 재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이 갖는 미국과의 대화의 출발점은 북–미 제네바 합의와 공동꼬뮤니케의 실천에 있다.

노동신문은 29일 부시정부의 아프간 공격으로 인한 전력공백을 구실로 남한에 ≪미군전력을 대폭 증강하면서 비상경계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은 ≪반공화국 군사적 압력과 전쟁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책동≫이라고 비난했다.

또 신문은 북–미관계에 대한 북한의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도외시하거나 반대하지 않으며, 비정상적인 조미 적대관계, 교전관계를 끝장내고 관계발전을 도모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프로세스를 통해 국제적 고립과 안보상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정책기조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북–미 대화 재개와 관련해 북한은 ≪우리는 조미대화를 기본합의문과 공동꼬뮤니케의 사항들을 실천에 옮기는 문제들부터 논의하는 대화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미국의 태도와 상이한 입장을 나타냈다.

미 국무부는 부시대통령의 지난 6.6 대북 대화 재개 선언이후 소위 뉴욕채널(실무급 비공식 대화)을 가동해 북한과 고위급대화 재개를 위한 절충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같은 양국간 관심사의 차이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지난 22일 열린 유엔총회 제56차 회의 4위원회 회의에서 북한대표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계획을 비난하면서, 북한의 평화적인 미사일 강령은 자주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은 테러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지난 30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아태 안보협력이사회(CSCAP) 신뢰안보 구축 작업반회의에서 북한측 대표로 참석한 김삼종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원은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김대표를 포함해 이 회의에 처음으로 3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미국의 반테러 군사행동의 반경에 북한이 포함될 개연성을 사전차단하고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를 겨냥한 정지작업의 하나로 풀이된다. 미국은 9.11 테러참사 이후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 등 테러단체에 관한 정보수집을 위해 미국이 지목한 테러지원국으로부터도 관련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이 자리에서 그와 관련한 논의를 북한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은 북–미관계를 둘러싼 주요 관심사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다.

▲기본입장
북한– 주권존중과 호혜의 원칙, 공정한 협상
미국– 대량살상무기 제거, 국제적 규범 준수

▲경수로 건설
북한– 경수로 건설 완료(2003년)이전 전력 손실분 보상
미국– 2003년 시한에 대한 탄력적 해석, 전력 보상 불가

▲핵사찰
북한– 경수로 핵심부품 도입 직전(시한 밝히지 않음)
미국– 핵심부품 도입 3–4년전

▲미사일
북한– 평화적 목적, 수출 중단 보상, 기술 이전
미국– 위협적으로 인식, 보상 및 이전 불가

▲재래식 군사력 감축
북한– 자위권 행사, 주한미군 주둔하에서는 불가
미국– 전방배치 군사력 대거 후방배치

▲테러문제
북한– 테러반대, 반테러 명분으로 한 주권침해 불허
미국– 구체적인 조치 요구(아랍 테러조직과의 연계 근절, 관련 정보 요구)

서보혁 기자(bhsuh@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0-31

일본의 군사적 재침책동을 분쇄하자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0월 24일~26일



날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재침책동이 최근에 와서 그 도수를 한층 높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민중은 마땅히 각성해서 그들의 책동을 저지시켜야 할겁니다. 그럼 ≪일본의 군사적 재침책동을 분쇄하자≫ 이 시간 첫 순서입니다. 김현규씨입니다.

청년학생여러분!

지금 해외침략야망에 들뜬 일본 반동지배층은 미국에서의 테러사건을 걸고 ≪자위대법≫을 뜯어고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일본 ≪자위대법≫에는 외구로부터의 직접적인 무력공격이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실질적으로 조성됐을 경우에만 ≪자위대≫를 군사행동에 진입시킬수 있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국회의 비준을 받아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반동지배층은 현행 ≪자위대법≫하에서는 무장게릴라의 공격을 받아도 응전할수 없다느니 뭐니하며 ≪치안출동발령≫전이라도 게릴라에 대해 강력한 무기사용을 인정하는 규정을 ≪자위대법≫에 박아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자위대≫는 제한된 법률적 구속에서나마 완전히 벗어나 제 마음대로 활개치게 될 것이며 각종 명목으로 경외의 임의의 장소에서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감행하게 될 것이라는 건 불보듯 명백한 사실입니다.

지금 일본내에서는 역사왜곡과 야스쿠니신사참배, ≪에이취-2에이≫로켓시험발사와 같은 군국주의를 찬미하고 재침열기를 고취하는 움직임이 더욱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일본반동지배층은 ≪자위대법≫을 개정하고 합법적으로 해외침략을 본격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학생여러분!

일본반동지배층이 해외침략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시아나라들이며 여기서 한반도는 그 첫번째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을 용납한다면 한반도는 또다시 전쟁마당으로 화하고 우리 민족은 일제식민지치하의 그 피눈물나는 수난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될 겁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일본반동지배층의 재침책동이 우리 민족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미칠 엄중한 악결과에 대해 똑똑히 알고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해외팽창야망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년학생들은 일본반동들의 군사적 재침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각계층 민중을 적극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선봉자가 되고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끼친 범죄적 만행들에 대해 군국주의열기를 고취하는 일본반동지배층의 악랄한 책동에 대해 각계 민중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홍보활동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대대적으로 벌여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각계층 민중모두가 일제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안고 그 쓰라린 굴욕의 역사,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일본의 군사적 재침책동을 반대해 과감히 떨쳐 일어서도록 준비해야 할것입니다.

청년학생들은 또한 일본반동지배층의 해외침략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실천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청년학생들은 각종 집회와 시위를 비롯한 투쟁공간들을 적극 이용해 성명과 호소문발표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본의 범죄적 과거를 기필코 청산하고 해외침략책동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우리 민족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세를 예의주시하면서 일본반동들의 군사적 재침책동과 과거청산회피책동을 사사건건 문제시하고 폭로단죄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반일투쟁에로 궐기시켜야 합니다.

일본의 재침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여 세계평화애호민중들과 손잡고 벌여나갈때 더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군국주의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면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반동지배층의 책동은 세계평화애호민중들로부터도 커다란 규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등이 평화를 위한 전세계동시집회선포식을 진행하고 일본역사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전개한 것은 세계평화애호단체들과 연대하여 반일운동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는데서 좋은 경험으로 됩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세계평화애호단체들과의 공동투쟁을 벌여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일본의 군국주의망동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도록 하게 해야 할겁니다.

일본반동지배층의 재침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자면 각계층 운동단체들과의 연대투쟁도 강화해야합니다. 일본의 역사왜곡과 군비증강, 군국화책동을 반대하는 건 모든 운동단체들의 하나같은 지향이고 공동투쟁과제로 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해외침략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서 각계 대중운동단체들이 힘을 합쳐 연대공동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갈때 민족민주운동세력의 단합은 그만큼 강화될 것이며 투쟁에서도 보다 큰 성과를 달성하게 될 겁니다.

청년학생들은 시대의 요청과 국민의 지향에도 부합되고 각계층 운동단체들과의 공동투쟁도 활성화할수 있는 투쟁안건들과 쟁점들을 적극 마련하고 그 실현을 위한 활동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일본의 군사적 재침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며 21세기를 침략과 전쟁이 없는 새 세기로 만들려는 인류의 지향에도 부합되는 의로운 투쟁입니다.

청년학생들은 일본의 재침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 일본의 해외침략야망을 분쇄하며 우리 민족에게 끼친 일제의 범죄적 과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기어이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일본반동들의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개정놀음 비난

로동신문



《평양 10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오늘 호 《로동신문》은 일본반동들이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그들이 《유엔평화유지군》참가를 국제적인 분쟁해결이나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임의의 시각에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합법적인 공간으로 삼으려는데 그 음흉한 목적이 있다고 폭로하였다.

론평의 필자는 이것은 《국제적공헌》을 구실로 한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기도가 날을 따라 로골화되고 있으며 매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국제사회계는 일본이 다른 나라들과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무력을 해외에 진출시켜 군사행동을 하려하는데 대해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가소로운것은 일본반동들이 이번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개정놀음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종결직후에 제기될 수 있는 《평화유지활동》에 《자위대》가 참가하는 것을 가상한다는 구실 밑에 벌려 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반동들이 중의원에서 《테로대책지원법》만을 통과시킨데 뒤이어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개정안골자를 마련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치가 아니다.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이 실천에로 이어 지는 단계에 급속히 들어 서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그 어떤 술책으로써도 저들의 해외침략기도를 가리울 수 없다.

론평은 일본군국주의의 해외침략은 곧 제2의 파멸과 잇닿아 있다고 하면서 일본반동들은 변화된 오늘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일본의 《평화》타령은 허튼 소리

로동신문



《평양 10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28일부는 일본고위당국자가 얼마 전 주변나라들을 행각하면서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떠들며 일본이 하는 모든 행동이 《평화》를 위한 것처럼 묘사한 것을 평하면서 이것은 기만술책이라고 폭로하였다.

《평화》를 부르짖으며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다른 나라를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쓰는 상투적 수법이라고 하면서 신문은 지난 날 일제침략자들이 이런 수법으로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침략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론평의 필자는 현 국제정세는 날이 갈수록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불리해 지고 있는데 대해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일본반동들은 국제정세의 흐름을 악용하여 기만적인 말로 저들을 《평화옹호자》로 묘사하면서 그 뒤에서 해외침략을 꾀하는 길로 나가고 있다.

오늘 일본의 군국주의부활과 해외팽창책동은 이미 위험계선을 훨씬 넘어 섰다.

일본반동들은 미군에 대한 《병참지원》을 통하여 해외군사작전에 발을 내디디고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행동과 간섭전쟁을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위대》무력의 해외파견을 허용하는 등 전쟁체제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위대》의 무장장비는 현대화, 장거리화 되였다.

태평양전쟁시기 《황군》 1개 사단의 1분간 발사능력은 14톤이였는데 오늘의 《자위대》 1개 사단의 1분간 발사능력은 611톤에 달한다.

일본반동들은 해외에 파견되는 《자위대》의 무기사용권한을 높여 주었다. 이런 상태에서 《자위대》무력이 해외에 파견되는 것은 위험천만한 사태가 아닐수 없다.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것》이라고 떠들면서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이와 같은 해외팽창책동에 대하여 국제사회계가 각서를 늦추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 기회에 다른 나라들을 불의에 침략하려 하고 있다.

일본군국자들의 기만술책에 경각성을 높이며 반일투쟁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통과는 군사대국화를 위한 수단이다

1. 일본의 군사 침략야욕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자위대 전시 해외파병과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테러대책 특별조치법≫이 일본 참의원에서 통과되었다. 이는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과 전 세계 국가들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처사이며, 전범국가인 일본이 다시금 군사 재무장과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려는 의도이기에 우리는 크게 분노하며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

2. 이 법이 통과되자 일본은 이지스함 파견과 함께 다음달 초 1천명 규모의 해상자위대를 인도양에 파견한다는 등 군사적 야욕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다음달 4일부터 11일까지 일본 주변 수역에서 올 들어 최대 규모로 미 · 일 군사연습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어 전 세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3. 일본은 과거 전범국가로서 피해 국가와 피해 당사자에 대한 진실 어린 사죄와 보상도 하지 않고, 반인륜 행위에 대한 자기반성조차 없는 상태이다. 이런 조건에서 이뤄지는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과거 침략역사를 정당화시키는 행위일 뿐이다.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듯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주변국에 대한 침략과 약탈로 이어졌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4. 지금 일본의 ≪테러대책 특별조치법≫ 통과에 대해 방관하고 아무런 대응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보며 온 국민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일본의 군사재무장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걸림돌이기에 온 국민과 함께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반대, 군사대국화 반대투쟁에 적극 임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01년 10월 30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대변인 정대연 018-683-7278 / 부대변인 장대현 011-9707-5435 김광균 017-658-9769)

자위대 분쟁지역에 전투병 해외파병

북한, ≪간섭전쟁 합법화≫ 비난

일본이 미국의 반테러 군사행동 동참을 명분으로 자위대 전투병의 해외파병을 합법화하였다. 일본 참의원은 29일 미국 주도의 반테러 군사행동 지원을 취지로 한 ≪테러대책 특별조치 법안≫을 찬반 140:100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참의원은 또 자위대가 일본 내 미군 시설 등을 경비하도록 한 ≪자위대법 개정안≫과 의심스런 선박에 대한 사격을 허용하는 ≪해상보안청법 개정안≫도 가결, 통과시켰다.

교도통신은 이 법안이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지 25일이라는 빠른 시간 안에 통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이 법안으로 일본은 미국과 국제사회와 협력할 수 있는 조치가 완성되었다≫고 만족해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테러대책 특별조치 법안≫ 통과로 일본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로 해상자위대 함대를 주축으로 부대를 인도양에 파견할 계획이다.

테러 특별조치법은 2년의 기간과 후방지역이라는 제한이 덧붙여졌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병사의 목숨뿐 아니라 인명 및 시설 보호로까지 확대할 수 있게 해 군사행동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일본 자위대는 그동안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여러 차례 참여한 적은 있었지만, 분쟁지역에 병력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방위 관련 종사원의 기밀 누설을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해 자위대 운영의 투명성에도 제한이 가해지게 되었다.

이같은 점들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겪은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강한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본 국내적으로도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금하고 있는 평화헌법과 배치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의 아프칸 공격이 자국으로 불똥이 될 것을 경계하고 있는 북한의 관영언론들은 일본의 최근 움직임을 비난해왔다. 노동신문은 28일 ≪날로 드러나는 전쟁세력의 정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반동들은 미군에 대한 ≪병참지원≫을 통하여 해외군사작전에 발을 내디디고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행동과 간섭전쟁을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자위대의 군사력이 ≪태평양전쟁시기 ≪황군≫ 1개사단의 1분간 발사능력이 14톤이었는데 오늘의 ≪자위대≫ 1개사단의 1분간 발사능력은 611톤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위대 군사장비의 현대화, 장거리화를 지적했다.

서보혁 기자(bhsuh@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0-30

보복전쟁반대평화실현연석회의측이 보복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측에 촉구한 것과 관련해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0월 23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민중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보복전쟁반대평화실현연석회의측이 20일 오후 서울역을 비롯한 전역 10개지역에서 동시집회를 열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측에 요구했습니다.

보복전쟁반대평화실현연석회의측은 지난 8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공격이후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거나 고통을 겪고 있고 미국시민들도 탄저균공포에 시달리고 있다며 미국은 즉각 전쟁을 중단하고 정부도 이번 전쟁을 지원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세론을 반영한 정당한 주장입니다.

지난 9월 11일 세계무역센터에 대한 비행기기습사건이 있은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보복공격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 시작된 미국의 군사보복작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도 카불과 주요 도시들과 군사시설들에 대한 비행기 및 미사일공격이 끊임없이 가해지고 특수부대의 비상작전이 계속됐습니다. 이로인해 아프가니스탄의 군사전략적 거점들과 시설들은 물론 도시와 민간시설물들이 혹심하게 파괴되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미국은 라덴과 그의 조직망을 완전히 소탕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며 라덴의 조직망과 연계가 있는 나라들에까지 보복작전을 확대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내외여론은 이같은 사태에 대해 심심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테러는 절대로 정당화될수 없으며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국제사회가 온갖 형태의 테러를 반대하는 것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테러와의 투쟁방법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며 그와 대치되게 무고한 주민들을 무참히 살해하거나 세계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무력행사와 전쟁의 방법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수가 없는 것입니다.

테러행위를 행위를 감행한 것은 몇몇 분자들이며 절대다수 국민들은 그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없는 민간인들이 반테러작전의 희생물로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근원을 없앤다고 하면서 군사적 행동을 다른 나라들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반테러목적에 어긋나며 그것은 오히려 엄중한 악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테러와의 악순환이 일어나면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고 수많은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며 나아가서 세계가 전쟁마당으로 변할수 있고 인류가 엄청난 재난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때 보복전쟁반대평화실현연석회의측이 보복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측에 요구한 것은 참으로 정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은 우리 민중은 물론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공격작전을 중지하라는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즉시 실천에 옮기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데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오후, ≪반전 평화≫의 목소리 높아



주말 오후 청년 학생들의 ≪반전 평화≫의 목소리가 넘쳐 났다.

지난 16일 ≪전쟁반대 평화선언≫을 했던 범청학련 남측본부를 비롯한 14개 단체가 주축이 돼 27일 오후 1시부터 종로 젊음의 거리에서 ≪반전평화통일 거리문화제≫를 가졌다.

이날 거리 문화제는 주한미군의 만행을 고발하는 사진과 그림 등이 젊음의 거리에 전시됐고 참가 단체 청년 학생들이 노래, 율동, 풍물공연 등으로 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젊음의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은 주최측이 준비한 그림과 사진전시를 관람하고 손도장 찍기 등의 행사에 참여해 ≪반전 평화≫의 메시지를 직접 담기도 했다.

오후 6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천지인≫을 비롯한 여러 민중가수들이 출연한 거리문화제가 진행돼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이날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다함께, 서총련, 21세기 진보학생연합, 전국 철학과 학생회연대, 녹색연합의 청년조직 등으로 구성된 ≪청년 학생 반전위원회≫는 ≪미국의 보복전쟁 중단, 한국정부의 전쟁 지원 반대를 위한 청년학생 반전 결의대회≫를 가졌다.

홍근수 목사는 미국의 아프간 전쟁을 미국의 위성국 같은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동원하여 미국의 전지구적 패권과 시장 장악을 유지하기 위한 제국주의적 ≪더러운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이의 저지를 위한 청년 학생들의 투쟁에 연대의 말을 전했다.

이어 결의대회 주최단체 대표들의 결의 발언으로 결의대회는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청년 학생들의 반전 평화 행사 외에도 오후 3시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민주노동당이 16차 용산미군기지 반환 결의대회를 갖고 미국의 보복전쟁과 한국정부의 전쟁지원을 규탄했다.

결의대회에서 김영제(민주노총) 통일국장은 이제는 노동자를 비롯해 모두가 반미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제 통일국장은 미국의 세계군사패권주의, 정치, 경제, 사회 등에서의 패권주의를 규탄하면서 미국의 아프간 전쟁은 이러한 목적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민중의 힘으로 이를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이어 김영제 통일국장은 민주노총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하반기 사업으로 ≪전쟁반대 평화실현 반미자주화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동당의 결의대회는 이경아(자통협) 투쟁2부장의 결의문 낭독 후 용산기지 주변의 평화행진으로 마무리됐다.

28일 예정이었던 6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무산되면서 미국의 보복전쟁이 한반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보다 설득력을 얻어 이후 반미 반전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0-29







회담 주최측이 선정하는 장소를 따라야 한다

북남상급회담 북측 대표단단장 남측 대표단 수석대표에게 통지문

북남상급회담 북측대표단 김령성단장은 제6차 북남상급회담장소를 가지고 남측이 부당한 고집을 부리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남측대표단 홍순영수석대표에게 25일 다음과 같은 통지문을 보내였다.

우리측은 최근 조성된 정세하에서도 북남관계를 순조롭게 풀어 나가려는 립장으로부터 이미 합의된 회담과 래왕일정에 대한 합리적인 제안들을 거듭 내놓았으며 특히 제6차 북남상급회담을 합의된 시일내에 열기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귀측은 우리측의 합리적인 일정조정안에 긍정적인 대답을 보내 오지 않고 제6차 북남상급회담 개최일이 박두해 오는 오늘까지 회담장소문제를 가지고 부당한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6차 북남상급회담을 금강산지역에서 하자는 우리측의 제안은 이미 서울에서 있은 제5차 상급회담에서 제기되였고 이러한 립장은 지금까지 일관하게 견지되여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측은 이 제안이 어느모로 보나 정당하며 누구에게나 납득될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으로 된다고 간주합니다.

지금까지 쌍방이 진행한 상급회담장소를 놓고 보아도 이미 상기시킨바와 같이 평양과 서울에서 각기 2회씩 하고 귀측지역인 제주도에서 한번 진행하였으므로 이번에 우리측 지역인 금강산에서 하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리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것처럼 귀측에서 제3차 북남상급회담을 제주도에서 하자고 제안하였을 때 우리측으로서는 그에 조건없이 응하였으며 그때에 벌써 금강산에서 할데 대한 문제가 론의되였음을 상기시키는바입니다.

이 사실을 놓고 보아도 귀측이 이번 회담을 금강산에서 하자는 우리측 요구를 반대할 그 어떤 리유도 없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회담장소를 회담주최측이 선정하면 대방이 그를 존중하고 따르는것이 북남사이에 하나의 관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귀측은 부정할수 없을것입니다.

한편 귀측이 지금까지 북남사이에 여러 갈래의 접촉과 회담, 행사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온 민족의 명산 금강산은 굳이 반대하면서 쌍방이 한번도 마주앉아 본적 없는 묘향산을 제기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습니다.

산은 금강산도 산이고 묘향산도 산인데 구태여 우리가 제기하는 금강산을 반대할 리유란 있을수 없습니다.

결국 귀측이 회담장소문제를 가지고 비틀고 있는것을 보면 회담의지가 없으며 더우기는 조성된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합의된 일정들을 리행해 나가려는 립장에 있지 못하다는것을 스스로 보여 줄뿐입니다.

우리측은 제6차 상급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위하여 언제나 금강산지역의 문을 열어 놓을것이며 귀측이 우리의 정당한 주장에 호응하여 회담에 나올 때까지 기다릴것입니다.

조선신보 01/10/29

정부, 금강산 회담 수용 배경



재보선 참패결과로 정부와 여당이 초긴장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때에 30일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 외에 대안은 없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홍순영 통일부장관은 북측의 ≪금강산≫ 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내정치와 남북관계를 둘러싼 향후 정국의 향방이 주목된다.

정부 당국자에 의하면 ≪형식과 절차에 문제가 있지만 합의사항 실천이 중요한 만큼 금강산에서 장관급회담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측과 회담장소를 놓고 설전을 벌여왔던 우리 정부의 입장 선회로 이르면 내달 8일 또는 11일경에 제6차 장관급회담이 금강산에서 열릴 전망이다.

정부 입장의 가장 큰 변화는 ≪일단 대화의 창구는 열어두자≫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북저자세 비판≫를 의식해서 줄곧 ≪관례와 합의≫를 강조해 왔지만, 북측 최종입장은 ≪회담장에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였다.

북측이 장소변경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 이상 정부측의 노력없이는 남북대화가 또다시 소강상태에 빠져 남북 긴장상태가 고조될 것을 우려한 정부는 ≪일단 마주앉아 대화부터 하고 보자≫는 입장으로 선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수차례 남북 당국자간에 이루어졌던 전화통지문 또한 9.11 테러사태 이후 남북간 위협인식의 차이와 남북대화 의지를 확인하게 된 측면에서 정부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처음 북측의 ≪비상경계태세≫를 이유로 한 상봉 및 회담 연기는 정부 당국자를 매우 당황케 하고 북측의 회담의지를 의심하는 입장이 주요했다면, 전통문이 오고가면서는 ≪북측 입장을 듣고, 우리측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대화의 필요성≫이 우선시 된 것이 아니겠냐는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현재는 남북대화를 지속시켜 나가는 것이 남측의 ≪책임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며 북측에 ≪약속과 합의이행≫을 촉구하는데도 유리할 것이며, 남북대화 지속이 불안정한 세계정세 속에서 남북긴장을 해소하는 한 측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최종 판단에 이르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30일 부산을 방문한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남북관계는 차질이 오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분단국가에서 화해협력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다≫고 발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지난 25일 여당의 참패로 끝난 재보선의 결과 역시 내부적으로 정부 입장을 선회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한나라당 권혁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재보선 기간엔 짐짓 강경한 입장을 취하던 이 정권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태도를 돌변했다≫는 주장처럼, 실제 여론과 야당의 제지를 우려해 망설이던 정부의 태도가 선거결과 후 더욱 정리된 듯 보인다.

이는 재보선 후 악화된 민심을 넘어 남북관계 문제는 초당적, 대국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밝힌 ≪햇볕정책 이외의 대안은 없다≫는 말처럼, 집권기간 동안 가장 주력해온 업무가 남북관계 개선인데 여론의 악화와 야당의 제지로 일관성과 추진력을 떨어뜨릴 경우 이제까지의 성과는 고사하고 후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 남북관계 사안상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금강산 및 경제협력 안은 국민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체감지수를 직접 느낄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국민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신뢰구축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한 듯 보인다.

문제는 북측의 태도이다. 대화의지는 상호 분명하나 합의사항의 구체적 실행문제에는 여전히 입장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다 남북간 여론이 남북대화에 역풍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금강산 제6차 장관급회담은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일정을 비롯해 제5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한 다양한 남북간 일정을 재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권 후반기를 맞아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정부가 국내 경제악화 및 민심이반 현상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면서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인지 관심 모아진다. 역풍을 헤치고 남북이 함께 공동보조를 취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현명하고도 진지한 노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박희진 기자(hjpark@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0-31

≪평화란 축제에 다름 아닌 것≫

화해와 평화를 위한 ≪세계작가회담≫ 막 올라

≪평화≫와 ≪화해≫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세계작가회담≫이 지난 27일 저녁 여의도 맨하탄호텔 리셉션을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애초 이 행사는 ≪내 사랑 경의≫의 김종수 신부와 ≪무기의 그늘≫ 작가 황석영이 8.15 방북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2001 평화촌≫ 행사의 일환으로 열릴 예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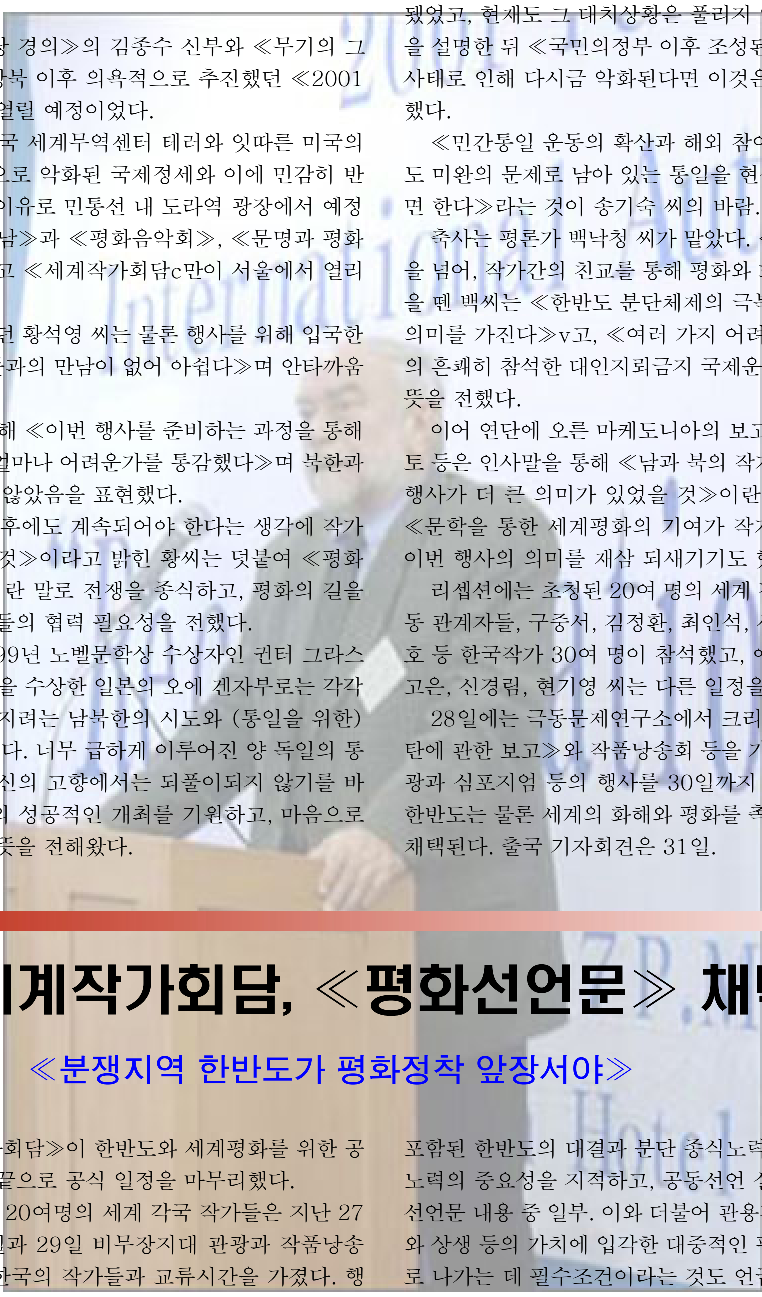
그러나 지난 9월11일 미국 세계무역센터 테러와 잇따른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공습 등으로 악화된 국제정세와 이에 민감히 반응한 북한측의 행사불참을 이유로 민통선 내 도라역 광장에서 예정되어 있던 ≪남북작가의 만남≫과 ≪평화음악회≫, ≪문명과 평화 포럼≫ 등의 행사는 무산되고 ≪세계작가회담c만이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

이에 대해 행사를 추진했던 황석영 씨는 물론 행사를 위해 입국한 외국 작가들도 ≪북한작가들과의 만남이 없어 아쉽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황석영 씨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이상이 현실로 실현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통감했다≫며 북한과의 협상조율 과정이 간단치 않았음을 표현했다.

하지만 ≪이런 행사는 추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작가회담만이라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밝힌 황씨는 덧붙여 ≪평화는 축제에 다름 아닌 것≫이란 말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의 길을 여는데 국경을 초월한 작가들의 협력 필요성을 전했다.

≪양철북≫의 작가이자 9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귄터 그라스와 역시 94년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일본의 오에 겐자부로는 각각 축전을 통해 ≪점점 가까워지려는 남북한의 시도와 (통일을 위한) 노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너무 급하게 이루어진 양 독일의 통일이 야기했던 어려움이 당신의 고향에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세계작가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고, 마음으로나마 행사에 동참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회담 참석을 위해 멀리 광주에서 상경한 소설가 송기숙 씨는 환영사에서 ≪남북의 대립 속에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군사독재가 지속됐었고, 현재도 그 대치상황은 풀리지 않았다≫는 한국의 분단상황을 설명한 뒤 ≪국민의정부 이후 조성된 남북의 화해무드가 미 테러사태로 인해 다시금 악화된다면 이것은 불행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민간통일 운동의 확산과 해외 참여작가들의 이번 방문이 아직도 미완의 문제로 남아 있는 통일을 현실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했으면 한다≫라는 것이 송기숙 씨의 바람.

축사는 평론가 백낙청 씨가 맡았다. ≪잘 조직화된 행사의 딱딱함을 넘어, 작가간의 친교를 통해 평화와 화해에 접근하자≫는 말로 운을 뗀 백씨는 ≪한반도 분단체제의 극복은 세계평화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v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행사의 흔쾌히 참석한 대인지뢰금지 국제운동 관계자들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마케도니아의 보고밀 규젤과 일본의 오다 마코토 등은 인사말을 통해 ≪남과 북의 작가들이 다같이 모였다면 이번 행사가 더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고, ≪문학을 통한 세계평화의 기여가 작가에게 부여된 역할≫이라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재삼 되새기기도 했다.

리셉션에는 초청된 20여 명의 세계 각국 작가와 대인지뢰 국제운동 관계자들, 구중서, 김정환, 최인석, 서해성, 공지영, 신동호, 방민호 등 한국작가 30여 명이 참석했고, 애초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던 고은, 신경림, 현기영 씨는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28일에는 극동문제연구소에서 크리스토프 부흐의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보고≫와 작품낭송회 등을 가진 세계작가회담은 DMZ 관광과 심포지엄 등의 행사를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30일에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공동평화선언≫이 채택된다. 출국 기자회견은 31일.

세계작가회담, ≪평화선언문≫ 채택

≪분쟁지역 한반도가 평화정착 앞장서야≫

2001 평화촌 ≪세계작가회담≫이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공동 ≪평화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입국한 20여명의 세계 각국 작가들은 지난 27일 리셉션을 시작으로 28일과 29일 비무장지대 관광과 작품낭송회, 심포지엄 등을 가지며 한국의 작가들과 교류시간을 가졌다. 행사를 주도한 황석영 씨의 말처럼 ≪평화란 곧 축제≫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양한 친교의 시간을 가진 것.

세계작가회담에 참여한 17명의 외국작가와 한국작가들의 공동명의로 발표된 평화선언문은 ≪지금 세계를 휩쓰는 테러와 보복전쟁의 악순환 속에서도 반전과 평화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 예측으로 시작되고 있다.

2000년 6월에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6.15 공동선언에 포함된 한반도의 대결과 분단 종식노력과 평화와 통일을 위한 공동노력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공동선언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선언문 내용 중 일부. 이와 더불어 관용과 공존, 소통과 어울림, 화해와 상생 등의 가치에 입각한 대중적인 평화운동의 전개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데 필수조건이라는 것도 언급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출발점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반도의 분쟁이 주변 국가의 개입으로 이어질 경우 아시아 전체의 불안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덧붙여 선언문에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평화협정의 체결과 평화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공식일정을 모두 마친 작가들은 내일 출국 기자회견을 가지고 귀국할 예정이다.

홍성식 기자 hss@ohmynews.com



영세중립통일협의회 출범



영세중립국으로의 통일을 주장하는 ≪영세중립통일협의회(중립협)≫가 창립총회를 가졌다.

중립협은 30일 오후 6시 세종문화회관 3층 컨벤션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획기적이고 혁명적인 새로운 통일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통일로 인한 남북과 주변 4강 국가에 어떠한 편파적인 이익이나 피해를 주지 않는 영세중립통일방안이 이상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선언했다.

중립협은 통일운동의 목표로 남북간 전쟁을 방지하고 민족갈등을 해소하면서 통일을 앞당기며, 외국이 침략과 간섭을 배제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영세중립통일의 대중화 ▲영세중립통일의 정책화 ▲영세중립통일의 제도화의 3대 원칙 하에 영세중립통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립협은 이러한 3대 원칙 하에 ▲≪남북의 화해와 불가침 침 교류 협력에 관한 기본합의서≫와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 이를 실천하는 평화적 국민운동을 전개 ▲남북이 상호불가침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할 것 ▲영세중립통일방안이 공평한 통일방안임을 남북과 4강에 주지시키는 국제적 운동에 적극 참여 ▲남북이 영세중립국으로 통일돼 자주독립국가를 이룰 때까지 범국민운동 전개 등을 실천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 중립협의 의장은 강종일(한반도중립화연구소)소장이 선출됐고 강승훈(언론인). 구종서(작가), 김진호(교수), 김승국(박사), 김영석(사장), 김제권(박사), 김희오(학장), 박채복(박사), 백도정(통일운동가), 이재봉(교수), 이희완(교수), 정대화(교수), 정재봉(외과전문의), 정정숙(박사) 등이 이사로 선출됐다.

이날 창립총회 본회의에 앞서 황인관(미국, 브래들리대학) 교수는 ≪영세중립통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요한 갈퉁(Johan Galtung) 교수는 ≪테러와 한반도 평화≫란 주제로 강연이 열려 좋은 반응을 얻었다.

황인관 교수는 ≪영세중립통일은 통일의 결과가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국이 되는 것으로 독립후에도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요한 갈퉁 교수는 미국은 911테러를 계기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고 이스라엘군을 철수할 것≫ 등을 제시했다.

중립협은 박광원(통일민주협의회장) 고문의 ≪만세삼창≫으로 대장전이 시작했다.

중립협은 지난해 12월 25일에 1차 준비모임을 갖고 그 이후 4차례 논의를 결쳐 오늘 창립하게 된 것이다.

중립협이 제시한 영세중립 통일방안이 통일과정과 통일후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의 침략과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해와 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있어, 중립협이 내디딜 이후 행보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송정미 기자(jmsong@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0-31





정부, 개인의 안보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야

≪2001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열려



27일 고 윤금이씨 사망 9주기를 맞아 주한미군의 범죄로 인해 숨진 이들의 명복을 비는 ≪2001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가 열렸다.

고려대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추모제에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고대총학)는 주한미군의 범죄와 미국의 비평화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와 고대총학은 ≪평화의 이름으로, 때론 정당한 보복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미국 주도의 전쟁에 의해 전세계의 민간인들이 계속 희생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주한미군에 의한 폭력과 강간 등 일상적인 테러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전 세계인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오진아 간사는 ≪백인이라는 우월감과 우리 나라를 지키러 왔다는 자만심이 범죄를 불러오는 요인인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오진아 간사는 주한미군의 범죄에 대해 ≪92년 이후 전체적으로 ≪강력범죄≫는 줄었지만 교통범죄 등의 ≪일상범죄≫는 늘어났다≫고 분석하고 정부에 대해 ≪국가안보에 대해서는 중시하지만 개인의 안보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추모제에는 지난 7월 16일 공사 중 미군 고압선(22,900V) 감전으로 양쪽 팔다리를 잘라낸 전동록씨의 아들 정민수군이 나와 ≪아버지 일로 인해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의 심각성을 알게 됐다≫며 미국으로부터 받는 불평등한 대우를 바꿔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자고 호소했다.

이날 추모제를 주관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윤금이 사건≫ 이후 미군범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1993년 10월에 결성됐으며 1994년 12월 28일부터는 단 한 주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매주 금요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윤금이 사건≫은 1992년 10월 경기도 동두천 미군전용클럽 종업원인 윤금이씨가 자궁에는 맥주병 2개와 국부 밖에는 콜라병이 꽂혀 살해당한 사건이며 윤금이씨를 살해한 미군병사 케네스 리 마클 이병은 현재 천안 소년 외국인 전용수감소에서 복역중이다.

이밖에도 주한미군의 범죄는 일년에 600~700건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SOFA) 규정에 의한 신병인도 문제로 아직까지 정확한 사건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것이 수백건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SOFA가 평등하게 개정되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정부가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에 따라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가 다소 줄어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0-29



민간인 학살 유족 피해보상 첫 판결

거창사건 유족 소송 일부 승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사건에 대한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처음으로 희생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거창.산청.함양사건은 물론 제주 4.3사건 등 특별법으로 위령사업이 진행중인 민간인학살사건 유족들의 손배소송이 잇따르는 것은 물론 보도연맹사건 등 피해자들의 특별법 제정요구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황정근 부장판사, 김유범. 이균철 판사)는 26일 거창민간인학살사건과 관련, 문병현 외 5명이 지난 2월17일 국가(소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제기한 ≪거창사건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상속분 5000만원) 청구≫에 대해서는 시효가 소멸된 점을 이유로 기각한 반면 ≪사건 이후 유족들이 입게된 피해에 대한 위자료(각 3000만원) 청구≫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들어 일부 청구한 위자료(20만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창사건에서의 사망 자체로 인한 피상속인들의 위자료청구권은 3년이 경과한 1954년 12월16일을 기점으로 소멸됐다≫며 ≪설령 손해 및 가해자를 몰랐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창사건 이후 유족들이 겪게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국가의 보호의무 위반을 들어 △거창사건의 발생 경위와 결과 △유족들이 받은 유.무형의 손해내용 △희생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금까지 국가는 거창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거나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유족들 고유의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가 금전 지급으로나마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거창사건 유족회 이철수 고문은 ≪당시 상황으로 볼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분위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효소멸이 적용된 점은 크게 실망스럽다≫며 ≪변호인과 협의해 앞으로 대응방법을 논의하는 한편 특별법제정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사건 유족 409명은 지난 2월 17일 학살사망 자체로 인한 위자료 각 5000만원과 유족들의 피해에 따른 위자료 각 3000만원을 합한 8000만원 가운데 일부인 각 20만원씩을 우선 배상하라는 내용의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오상진 기자 jean@dominilbo.com

≪억울한 죽음 이제는 말하고 싶다≫

민간인학살 특별법 제정 이뤄져야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희생자 부산경남지역(부경) 합동위령제≫가 이번 달 27일 부슬비가 내리는 마산역 광장에서 민간인학살 유가족과 시민, 학생 2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추모연주와 묵념으로 시작되었다.

이는 정권유지를 위한 사상범 통제를 목적으로 조직된 국가보도연맹 학살사건과 한국전쟁시 미군 및 국군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당한 양민들의 유가족이 작년에 이어 두 번째 합동위령제를 가진 것이다.

오종렬 민주주의민족통일상임의장은 추모사에서 미국에서는 극소수만이 남은 아메리카원주민의 후예 또한 5백여 년 간의 원주민학살의 진상규명에 대해 외치고 있다며 ≪아버지를 끌고 가던 군화발 소리도 기억하는 지금 우리도 더 이상 참지 말고 진상규명을 외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창모 부경총학생회연합의장은 ≪50여 년 전 미군에 의해 학살당한 원혼들이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은 또다시 아프카니스탄의 어린이와 노인을 학살하고 있다≫며 미국의 잔혹성을 비난했다.

원혼들을 위로하기 위한 ≪해원굿≫이 벌어졌고 유족과 내빈들이 영정에 헌화를 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6·25 때 북한군이 내려왔단 소리에 싸우러 나갔다가 미군에 의해 차로 연행된 후 소식이 끊어진 아버지(당시 20대)를 둔 이계자(경기도 시흥시·55) 씨는 그 이후 어머니도 화병으로 돌아가셔서 힘들었던 삶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또한 ≪지난 번에 텔레비전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방송되는 것을 보고 연락하자 국회에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아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해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 주었다.



≪빨갱이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지리산으로 피난을 가던 중 미 제트기의 폭격을 맞아 사망한 시아버지의 억울함을 이제는 밝히고 싶다는 강관연(경남 사천시) 씨는 많은 단체의 원한을 풀어 주려는 노력에 고마움을 표했다.

≪따뜻한 사람들≫ 동아대학교 역사연구동아리 회원 20여 명과 함께 참여했다는 김명근(동아·컴공) 회장은 ≪역사기행 중 양민학살의 사실을 알게 되어 매년 위령제에 참가하고 있고, 유족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김영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희생자 부경지역대표가 낭송한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진상규명 노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마지막으로 모든 위령제가 끝났다.

이번 민간인학살 희생자 합동위령제는 학살의 진상을 밝혀 역사를 바로 세우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억울하게 죽은 영혼을 달래는 일이 더 이상 미루어 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었다.

신라대 강수경 기자 kangsukyeung@hanmail.net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지역본부 성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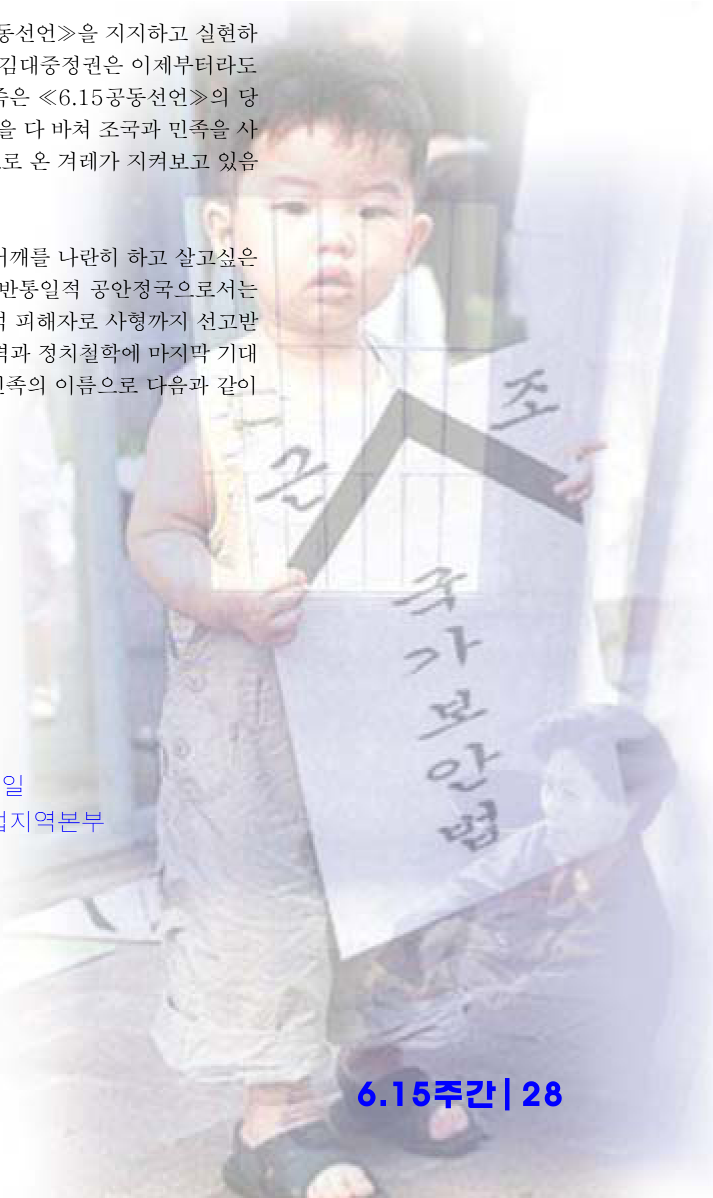
조국분단의 반쪽역사를 살며 흘리는 피눈물과 생이별을 해야했던 부모, 자식들의 한과 속으로 씹어 삼키는 민족의 속울음을 듣다못해 통일이냐? 분열이냐? 라는 민족사적 절규와 호소 앞에 일신의 영예와 안락한 삶을 거부하고 우리 7천만 민족의 온전한 삶과 행복은 외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민족자주적 평화 통일에 있음을 통감한 남북해외의 민족적 양심들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을 결성한 1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각, 분단 조국 56년만에 그것도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저 악랄한 일제로부터 해방된 56년을 맞는 21세기 새 천년의 첫 8.15조국광복절행사를 온 민족의 합의아래 ≪민족통일대축전≫행사로 치를 것을 합의하고 평양을 방문한 수많은 사회단체 대표들은 평양에서 남북 공동으로 민간사회단체들 마다 각 부문에서 ≪6.15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다양한 행사개최에 합의하고 공동으로 실천할 것을 민족 앞에 선포하면서 2002년 8월에는 서울에서 ≪민족통일대축전≫행사를 거국적이고도 거족적으로 개최하기로 선언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북해외는 결성 10년만에 처음 합법(?)적으로 만나 ≪6.15공동선언≫이 요구하는 역사적 실천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범민련의 강령과 규약을 역사적 요청에 맞게 개정했음에도 수구반동세력들의 반역사적, 반통일적인 공세에 밀려 외세가 제정한 냉전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을 적용 회합, 통신, 잠입, 탈출죄에다 이적단체까지 적용, 남측본부 성원 6명만을 구속한 김대중정권을 ≪만인을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 심의마저 사문화시키는 시대착오적 법 집행을 ≪여소야대≫라는 구실로 자행하는 김대중정권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진정 우리민족끼리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평양까지 찾아가 ≪6.15공동선언≫을 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동북아 지배정책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목적달성을 위해 ≪6.15공동선언≫을 한 것인지? 에 대한 역사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더더구나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성원 6명을 구속한 것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고 실현하려는 민족 전체를 구속한 민족에 대한 배신이자 역사적 반역행위라는 사실을 김대중정권은 이제부터라도 똑바로 알아야 하며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룬 조국에서 영원히 살려는 우리민족은 ≪6.15공동선언≫의 당사자인 김대중정권이 구속한 범민련남측본부 성원 6명은 물론 일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 양심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김대중정권에 대한 역사의 시금석으로 온 겨레가 지켜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통일된 삼천리 강토에서 수수천년 맺혔던 한을 풀고 우리민족끼리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고싶은 민족들이 벅찬 통일의 새역사를 준비하는 민족사적 숭고한 소명에 역행하는 반통일적 공안정국으로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교훈을 찾고 지난날 국가보안법의 직접적 피해자로 사형까지 선고받으면서까지 험로역경의 삶을 살아온 ≪행동하는 양심≫후광 ≪김대중≫의 인격과 정치철학에 마지막 기대를 하면서, 하루를 살지언정 외세가 없는 통일조국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는 민족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6.15공동선언≫ 제 1항에 충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외세가 제정한 ≪국가보안법≫폐지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시대착오적인 ≪이적단체≫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모든 양심수들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1년 10월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유럽지역본부

한총련의 합법화를 실현하자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0월 24일～26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총련은 백만학우들의 대중적인 조직입니다. 한총련은 출현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청년학생들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민중의 투쟁역사에는 한총련과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의 위훈과 발자취가 새겨져 있으며 그들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고귀한 넋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민족자주통일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는 때에 한총련은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나감으로써 통일의 선봉장으로써의 자기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고 민족과 민중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이 ≪6.15공동선언방해하는 주한미군은 물러가라≫, ≪6.15방해, 미국의 대북강경정책 분쇄하고 자주통일 이룩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할 굳은 결의를 다지고 민족의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에 힘차게 나서고 있는 것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총련이야말로 시대의 요청과 청년학생들의 의사와 요구를 대변해서 투쟁하고 있는 통일애국단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지 1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공안당국은 한총련을 여전히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악랄하게 탄압하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의 이같은 이적단체규정은 한총련을 말살하고 통일운동을 가로막기 위한 반통일행위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한총련은 공안당국이 이적단체로 규정하는데 항의해서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바로 보지 못한 구태의연한 행각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적단체규정을 철회하고 한총련의 합법화를 보장할 것을 주장해 나섰던 것입니다. 한총련뿐 아니라 범민련남측본부를 비롯해서 통일애국단체들도 한총련을 합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총련합법화≫, 이것은 시대와 역사발전의 요구이며 자주민주통일을 열망하는 애국적인 청년학생들과 각계층 민중의 일치한 주장입니다. 더욱이 오늘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후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조국의 자주통일을 이룩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역사적 환경이 마련되어 가는 때에 한총련을 비롯해서 통일애국단체들을 합법화하는 것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응당한 요구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총련을 합법화하는 여기에 청년학생들의 자유로운 활동과 통일운동을 원만히 벌여나갈 수 있는 길이 있고 민족의 자주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은 한총련을 합법화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하며 그러자면 한총련에 대한 당국의 부당한 이적단체 규정철회를 요구해서 과감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야 할겁니다.

이와 함께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전면철폐하고 체포구속된 애국적 청년학생들을 석방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여나가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룩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민족주체의 단결된 힘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 다름아닌 조국통일입니다. 그런만큼 청년학생들과 통일을 열망하는 민족구성원 모두가 민족의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여기서 한총련이 맡아 수행해야할 임무는 참으로 막중합니다.

한총련이 민족과 민중앞에 지닌 자기의 책무를 다하려면 청년학생들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로 올바로 조직동원해야하고 통일애국단체로써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청년학생들은 이 성스러운 투쟁과정을 통해 한총련의 합법화를 이루어내야 하며 언제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굴함없이 싸워나감으로써 통일의 선봉대로써의 역할을 다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네, 청년학생여러분은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결의로 가슴 불태우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한총련 합법화실현에 응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거예요.

≪표현의자유≫침해하는 대표적인 법은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 위한 제도개혁 방안 공청회



예술가들은 과거 표현의 자유를 가장 많이 침해했고, 앞으로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법률로 국가보안법을 지목했다.

이는 한국민족예술인연합(이하 민예총)이 화가와 시인, 소설가와 영화감독, 만화가와 사진작가 등 예술인 2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현의 자유가 창작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다.

민예총과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혁 방향≫이란 제목의 공청회를 열었다.

홍승기 변호사가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고, 문화연대 이동연 사무차장과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실장의 청소년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발제도 있었다.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된 국가보안법과 청소년보호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과 이 법들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 등이 토론·발표된 이 자리에서 ≪표현의 자유가 창작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예술가들은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를 가장 크게 침해한 가진 법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하는 설문에 75.9%가 ≪국가보안법≫≫이라고 답해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예술가들의 창작욕구를 옥죄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영상 메시지를 보내온 화가 홍성담 씨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엄존하는 이유는 그 법이 유지됨으로써 이익을 얻는 계층이 분명히 있다는 증거≫라며 ≪표현의 자유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에 (국가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 역시 영상메시지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거론되는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이미 200만 명의 독자가 읽은 작품≫이라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200만 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있단 말인가? 이건 코미디다≫는 말로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설문에 응한 예술가들은 국가보안법 외에도 청소년보호법(8.4%), 음비게법(6.8%), 정보통신망법(2.0%)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로 꼽았다.

≪창작행위와 작품유통 과정이 법률에 저촉된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20.3%가 ≪있다≫고 답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저촉시 해당 법률 중 국가보안법이 74.2%로 드러나 실질적인 창작행위와 작품유통에 있어 국가보안법은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법으로 나타났다.

≪표현의 자유를 가장 많이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모든 조항≫이라는 응답이 50.8%였고, 제7조(찬양고무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제작)와 제2조(반국가단체 정의의 모호함)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응답자의 비율도 46.8%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국가보안법의 실제 기능≫과 ≪바람직한 국가보안법 개정방향≫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유≫ 등을 묻는 설문에는 각각 ≪정권안보 및 정권의 유지, 이데올로기 통제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91.6%)≫ ≪전면 철폐 해야 한다(73.6%)≫ ≪보수층을 의식한 정당의 정략적 이해 때문이다(90.9%)≫라고 예술가들은 답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전효관(하자센터 부소장) 홍순석(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국장)씨 등은 ≪국가보안법을 위시한 청소년보호법, 음비게법, 정보통신망법 등은 사실상의 검열과 통제의 수단으로, 이로 인해 많은 예술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으며, 자기검열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화가 이현세 씨 역시 ≪검열이 아니었다면 나는 훨씬 치열한 사회참여 작가가 됐을 것이다≫며 ≪만화를 문화로 생각하지 않고, 상품으로만 여기는 사회환경 탓에 만화에 대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고 영상메시지를 통해 고충을 토로했다.

국가보안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의 유지를 주장하는 반대 토론자가 참석하지 않은 까닭에 공청회는 다소간 김이 빠진 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표현을 생산해내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란 단순명제를 떠올린다면 공청회가 가진 의미가 작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가수 정태춘 씨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사회에서 태어난 건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불행≫이란 말이 가진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예술가들 아니, 우리들은 정 씨가 지적한 타의가 강제한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가?

오마이뉴스 2001/10/25



자주민보 공대위 결성 및 기자회견 열려

29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가 ≪자주민보 탄압 저지 및 구속언론인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구성하고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근수 공대위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을 ≪민족민주운동의 대중적 진출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정치테러≫라고 규정하고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인 폭거≫이며 ≪수구반통일 세력의 공동선언을 역행하려는 음모≫라고 비난했다.

또한 홍근수 공동대표는 ≪반시대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구속자 3인을 즉각 석방하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자주민보의 기자 3인이 연행되자 지난 25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통해 오늘 공식적으로 결성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구속된 박준영(29) 기자의 공소장을 통해 ≪북한의 대남공작부서의 지령을 받고 활동중인 재일 북한 공작원 김명철(≪김정일의 통일전략≫ 저자)씨와 회합통신≫을 구속사유로 밝히고 있으며 이밖에도 황선(범청학련 대변인)씨의 글을 모아 펴낸 ≪어머니, 여기도 조국입니다≫와 미군의 민간인학살 보고서인 ≪움직이는 것은 무엇이든 쏴라≫ 등 그동안 월간 자주민보에서 발행한 다수의 책들을 이적표현물로 규정하고 있다고 자주민보의 나풍자 기자는 밝혔다.

그러나 공대위의 권오헌(장기수 송환대책위 위원장) 공동대표는 이번 사건의 경과보고를 통해 자주민보는 ≪언론밖에 놓여 있던 민중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대중적인 합헌 출판 언론사≫라고 주장했으며 자주민보의 한 기자는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언론인을 구속하는 것은 민족의 화해를 저해하는 반민주 반통일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번에 구속된 3명의 기자는 대학교 다닐 당시 학생운동을 한 바 있으며 이창기 발행인은 ≪홍치산≫이라는 필명으로 ≪바보 과대표≫, ≪10분 사랑≫ 등의 시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자주민보는 진보세력에게 6.15남북공동선언의 실천과 통일에 이바지하는 진보대안매체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난해 5월 언론사로 정식 출범해 단행본 ≪통일 참 쉽다≫와 매달 ≪자주민보≫라는 잡지를 펴내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www.jajuminbo.com)도 운영중이다.

또한 통일에 대해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들을 위한 단행본 2권을 준비하고 있으며 발행일이 다소 늦춰지기는 하지만 11월 말쯤되면 새책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공대위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올 1월 월간 중앙의 김명철씨 인터뷰와 남북정상간의 만남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다음달 1일 오후 2시 국정원 앞에서 대대적인 항의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대위의 이번 활동은 물밑으로 가라앉았던 국가보안법 개폐지 투쟁을 수면으로 끌어올려 다시 세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숙 기자(mskim@tongilnews.com)
통일뉴스 2001-10-29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은 ≪6.15남북공동선언≫을 훼손시키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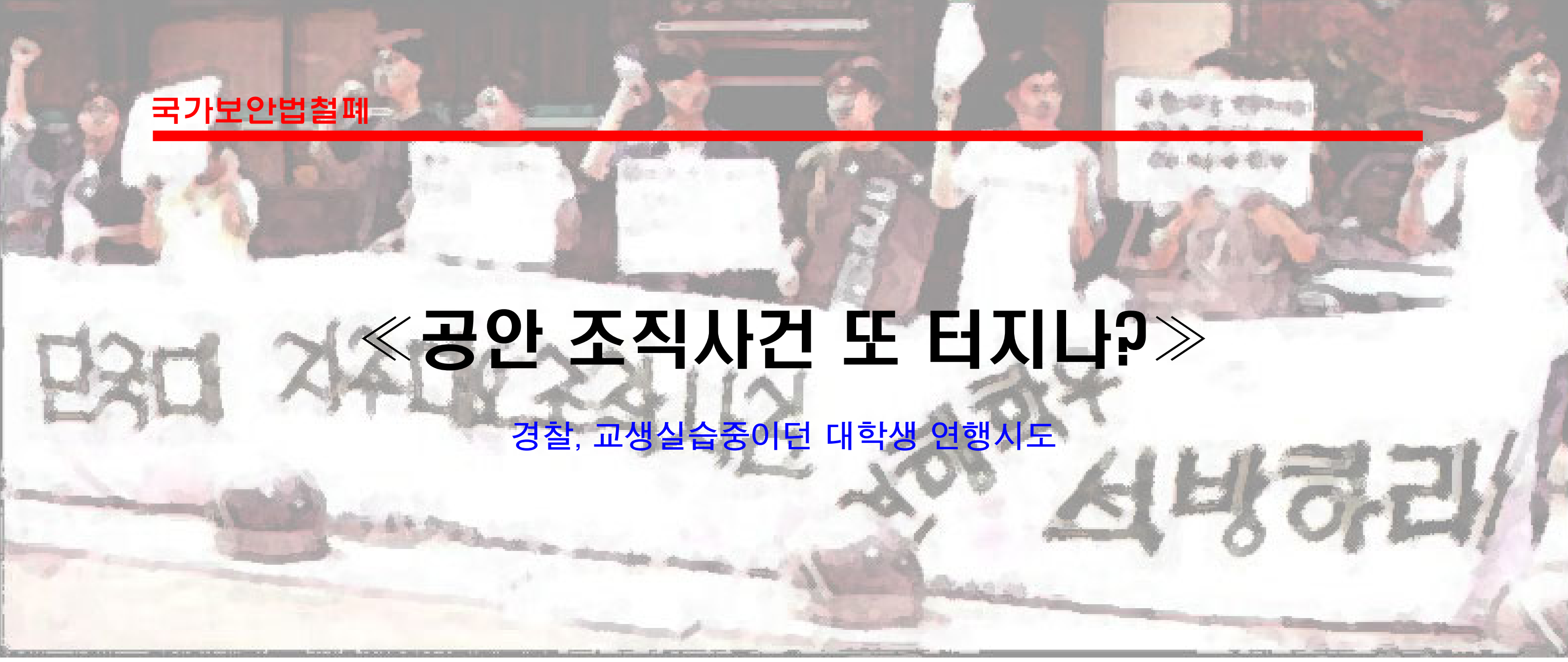
1. 지난 23일 국정원은 ≪자주민보≫이창기 편집장과 박준영, 백운종 전·현직 기자 등을 연행하고, 국정원 소속 20여명이≪자주민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자행하였다. 이는 엄연한 언론 탄압이자, ≪6.15남북공동선언≫의 진정한 의의를 훼손시키고 흠집내기 위한 공안기관의 파렴치한 행위이다.

2.≪자주민보≫는 창간 1년 6개월에 이르기까지, ≪6.15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해 언론과 언론인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 또한 조국통일을 염원하고 갈망하는 많은 이들에게 ≪6.15남북공동선언≫의 진정한 의의를 전파하는 조국통일의 전령자 역할도 성실히 임해 왔다.

3. 이러한≪자주민보≫를 탄압하는 것은 반공과 반북을 생명줄로 여기고 있던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들이≪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자신의 입지를 찾지 못하고 구석에 몰리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4. 우리는 아직까지 반북·반공이데올로기에 찌들려 사문화된 국가보안법에 의지한 채, 조국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공안당국에 요구한다.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저해하는 국정원을 비롯한 공안기관을 즉각 해체해라. 그리고 국가보안법 혐의로 연행한 ≪자주민보≫ 이창기 편집장을 비롯한 두 명의 전현직 기자를 즉각 석방하라. 조국통일에 대한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민족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철폐하라.

2001년 10월 26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대변인 정대연 018-683-7278 / 부대변인 장대현 011-9707-5435 김광균 017-658-9769)



≪공안 조직사건 또 터지나?≫

경찰, 교생실습중이던 대학생 연행시도

경찰, 교생실습중이던 대학생 연행시도
≪1신≫교생실서 수갑채워…≪조직사건≫ 징후

소속을 알 수 없는 경찰 4명이 고등학교 교생실에 난입, 실습중이던 대학생 연행을 시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오후 3시경 담당교실에서 실습을 마치고 교생실로 들어온 고대 4학년 송모학생에게 신원이 불분명한 경찰 4명이 ≪카드 빚 때문에 찾아왔다. 그러니까 잠깐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며 동행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쓴적도 없는 송모학생이 ≪그러한 사실이 없다. 다른 정확한 이유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며 동행을 거부하자 그들은 수갑을 채우고 폭력을 가하며 강제 연행을 시도했다.

끌려 나가지 않으려는 송모학생과 경찰이 실랑이를 벌이던중 다른 교생들과 실습학교 선생, 소식을 듣고 학교로 찾아온 고대생들에 의해 20여분간의 다툼끝에 연행은 무산됐다.

송모학생에 의하면 ≪소속이 밝혀지지 않은 이들 4명은 학교장의 허락도 받지 않은채 무단으로 시설물에 침입해 일을 벌이려고 했다. 처음에 협조를 받았다고 말하다가 체육선생의 추궁끝에 거짓이었음이 드러나자 얼버무리며 막무가내로 연행을 시도했으나 선생님들, 학생들, 교생들이 강력하게 항의하자 수갑을 풀어주고 나갔다≫고 전했다.

이에 같은 학교 한 학생은 ≪고등학교에 교생실습을 나간 학생을 학내에서 연행하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이는 단국대에서 조작사건을 일으켰던 바와 같이 공안당국이 사건을 조작하려는 계획이 틀림없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송모학생을 연행하려했던 경찰들의 소속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50여 명의 고대생들은 송모학생과 관련 불법연행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진 후 학내에서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공안 조직사건 또 터지나?≫
≪2신≫고려대 총학생회, ≪학생운동 탄압중단≫ 철야농성

지난 24일 고려대 교육학과 4학년 송범근(95)씨가 교생실습도중 실습학교로 무단 침입한 공안기관요원으로 보이는 5명의 남자들에 의해 불법연행을 당하려다 주변사람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군사정권식 인권침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높다.

고려대 총학생회에서 정책국장직을 맡고 있는 송씨는 98년 말 고려대 부총학생회장에 당선돼 ≪한총련≫이적규정으로 99년1월, 2000년 5월 두 차례 연행됐다가 실형6개월을 살고 만기 출소한 후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법적 절차인 사전 출두요구서조차 받은 적이 없다는 송씨는 ≪총학생회라는 공개적인 조직에서 활동하고, 교직과정의 일환으로 교생실습을 하고 있는 나를 불법 연행하려고 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처음엔 카드빚, 나중엔 형집행정지 운운하며 거짓말로 우선 연행부터 하고 보자는 발상과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함에도 무단침입, 미란다원칙은 물론 구체적인 영장제시도 하지 않고 신분도 확실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전례를 볼 때 공안당국의 조작사건 만들기의 과정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또 송씨는 재연행 우려가 있어 11월3일 만료되는 교생실습을 현재 중단한 상태다.

한편, 고려대 총학생회측은 이번 사건을 ≪지난 학기 ≪단국대 자주대오 조직조작사건≫에 이은 학생회 및 학생운동 말살을 위한 대량 조직조작사건 징후≫로 내다보고 있다.

총학생회측은 ≪최근 2-3개월 동안 공안요원이나 프락치의 학교주변 및 학내사찰이 여러 차례 드러났고, 송범근 사건을 전후로 고려대 뿐 아니라 서울지역 다수의 대학내외에 공안기관원 수십 명이 노골적으로 진을 치고 있어 검거시도에 들어간 것 같다≫고 예측했다.

현재 총학생회는 학생회실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으며, 오늘(26) 오후3시 서울시경찰청앞에서 ≪불법연행기도, 조직사건 조작음모분쇄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대학생100여명 ≪조직사건 조작중단≫촉구시위

오늘(26)오후 4시경 고려대, 경희대, 국민대, 중앙대 등 서울지역대학생 100여명은 24일 교생실습도중 불법연행위기에 몰렸던 고려대 송범근씨와 관련 서울시경앞에서 ≪불법연행시도 사과≫와 ≪학원사찰중단, 조직사건 조작음모 중단≫을 촉구하며 2시간 가량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송범근 연행을 시도한 형사들은 제대로 된 영장제시는 고사하고. 고등학생이 공부하는 곳에 불법으로 들어와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비인권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이 연행시도는 대규모 조직사건 조작의 시작임이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8,90년대 안기부, 검찰 등은 정권이 지지기반을 잃어갈 때 조직사건조작 등의 공안정국 조성으로 반전을 꾀했다.≫며 ≪615공동선언시대에 이런 구시대적인 행태가 일어나는데 대해 민주주의와 정의를 갈구하는 대학인으로서 참을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한편, 집회참가자들은 이번 ≪송범근 연행시도와 학원사찰및 조직사건징후 배후에 ≪서울시경찰청≫이 관련되지 않았냐≫고 추궁했지만, 시경측은 ≪자신들과 아무런 관련없다≫고 일축했다.



박정미/배태호 기자 unews@unews.co.kr



비인간적인 불법연행 사죄하고 조직사건 조작음모 중단하라!



10월 24일 99년 부총학생회장 송범근 동지가 교생실습을 나갔던 고등학교에서 형사들에 의해 연행이 될 뻔하였다. 다행히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연행은 면하였지만 우리는 공안기간의 불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연행을 시도한 형사들은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는 것은 고사하고 술을 먹고 연행을 시도하였다. 또한 그들은 고등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곳에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가하는 비인간적인 행태를 보이었다.

우리는 송범근 동지에 대한 검거시도가 단순히 송범근 동지 한명만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올해 서울지역 많은 수의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학내 사찰활동이 아주 강화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학교주위에 수십명의 형사들이 포진하고 있으며 여러 경로를 통해 고대뿐만이 아니라 더큰 규모의 조직사건 조작이 검찰의 지휘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하기에 송범근 동지에 대한 연행시도는 조직사건 조작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우리는 8,90년대 안기부, 검찰 등이 수많은 조직사건을 만들어냈던 것을 기억한다. 그 조직사건들 거의 대다수가 일상적인 학생운동 활동을 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검거하고 난 후 몇가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덧붙여 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다고 공표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난 시점들이 대부분 정권이 위기에 몰리거나 정세적으로 자신들이 불리할 때였다. 조직사건을 계기로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위기탈출의 계기로 삼았던 것이다.

2001년 현재 우리는 공안기관은 시대를 거스르는 조직사건 조작을 또다시 하려하는 것을 보고 있다. 615공동선언 이후 자신들이 설 자리를 급격히 잃어가고 있는 공안기관이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고 다시금 구시대적인 행태를 저지르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기간 몇차례에 걸쳐 계속적인 학원사찰과 조직사건 조작을 진행하고 있는 공안기관에 경고해왔다. 하지만 우리들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어코 도발을 감행하려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똑똑히 알려줄 것이다. 지금의 자신들의 행위가 자기 목숨을 재촉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송범근 동지 연행을 계기로 조직사건을 만들려고 하였겠지만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그들의 무덤을 팔 것이다. 불법연행, 학원사찰, 조직사건 조작이라는 말은 역사속의 흘러간 말로 만들 것이며 지금의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검경의 인사들은 이 사회에 더 이상 발디디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의 단결된 투쟁은 역사의 대세를 거스르려는 걸림돌들을 깨끗이 걷어버리고 자주민주통일을 향한 거대한 물결이 되어 나아갈 것이다.

비인간적 불법연행시도 즉각 사죄하라!
학원사찰 중단하고, 조직사건 조작음모 즉각 중단하라!

불법연행시도규탄, 조직사건 조작음모분쇄를 위한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전쟁불구름을 몰아오는 이회창 몰아내자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0월 24일～26일



지금 노동대중을 비롯한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미국의 대북강경책동에 추종하는 이회창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정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회창은 미국의 대북강경책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이땅의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 하고 있습니다. 이회창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지지찬양하면서 이땅을 미국의 살인무기전시장, 핵전쟁화약고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영구주둔을 애걸하면서 노농대중을 비롯한 우리 민중을 미국독점자본의 노예로 이땅을 영원히 미국의 식민지로 섬겨 바치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마자 남북정상회담직후 곧바로 주한미군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비하던 이회창은 주한미군이 한반도평화에 큰 기여를 했다느니 뭐니 하면서 주한미군철수를 극력반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회창은 온 겨레, 온 세계가 적극 지지, 찬양하는 역사적인 조러모스크바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주한미군철수문제가 이땅의 안보를 해칠수 있다고 역설함으로써 식민지 변견으로써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내놓았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회창은 대북관계에서의 ≪상호주의≫, ≪투명성≫, 철저한 ≪검증론≫을 떠벌이며 남북관계를 대결의 국면으로 몰아가려고 어리석게 책동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평양에서 진행된 민족통일대축전 참가자들의 의로운 통일애국활동을 악의에 차서 비상중상, 왜곡하고 그것도 모자라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고 떠벌인 것도 다름아닌 이회창입니다.

이회창은 최근 모처럼 마련된 남북장관급회담재개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북한불변론≫, ≪북한퍼주기론≫ 등 허구적이며 반민족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며 남북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깨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이회창은 6.15공동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합리적인 통일방안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제도통일론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른바 흡수통일로 동족인 이북을 집어삼키겠다는 망상으로써 어떻게하나 이땅에 제2의 6.25전쟁을 불러오려는 이회창의 반민족적인 전쟁광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회창의 이같은 책동은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이땅에서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대한 명백한 거부이고 도전이 아닐수 없습니다.

만일 이런 자를 그대로 놔둔다면 이땅에는 제2의 6.25전쟁이 터지게 되고 우리 민중은 핵전쟁의 참화를 면할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언제가도 민족분열의 비극을 끝장낼수 없음은 물론이고 우리 노농대중이 그토록 갈망하던 노농해방도 이룩할수 없게 될겁니다. 그러니 우리 노농대중이 어찌 민족반역자 이회창을 그대로 놔둘수 있겠습니까.

현실은 우리 노농대중으로 하여금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거족적 투쟁에 과감히 분기해 나설 것을 요구해 나서고 있습니다. 노농대중은 대중운동의 주력부대로 반이회창투쟁에 당연히 앞장서 나가야합니다.

그러자면 노농운동단체들과 운동핵심들이 광범위한 노농대중속에 미국의 ≪핵전쟁머슴꾼≫이 되어 이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 하고 있는 이회창의 죄행을 널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이회창이야말로 ≪사대매국노≫, ≪전쟁광신자≫, ≪통일의 원수≫일뿐 아니라 노농해방을 가로막는 노농대중의 원수임을 올바로 인식하고 노농대중이 반이회창투쟁에 적극 나서도록 해야합니다.

노농대중은 당면하여 지금 벌이고 있는 ≪생존권쟁취투쟁≫과 ≪조선일보반대투쟁≫을 ≪반이회창투쟁≫과 밀접히 결부해서 벌여나가야합니다. 특히 최근 청년학생들과 1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반이회창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으로 해서 이 투쟁에 적극 지지동참하여 반이회창투쟁의 불길을 더욱 고조시켜 나가야 합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분열이냐 통일이냐하는 준엄한 이 시각, 대중운동의 주력부대인 우리 노농대중이 서야할 위치는 ≪반이회창투쟁≫의 맨앞자리입니다.

우리 노농대중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각계 민중과 굳게 손잡고 거족적인 투쟁으로 이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미제의 ≪전쟁머슴꾼≫ 이회창을 단호히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회창으로 말하면 애비가 일제시기 검찰서기를 하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애국적 민중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친미주구의 자식이죠. 그리고 이회창 자신은 법관의 모자를 쓰고 민주언론말살과 통일애국세력탄압에 광분한 민중의 원수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 흘러든 지금에 와서는 미국에 빌붙어 6.15공동선언이행을 한사코 가로막으며 이땅을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고 온갖 못된 짓을 다하고 있는 희세의 친미사대매국노죠. 노농대중을 비롯한 각계 애국민중은 민족의 수치인 반역아 이회창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회창한나라당총재의 김정일국방위원장 답방 반대에 대한 통일연대 논평

10월 28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 연내 답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년에라도 추진하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선국면에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라는 조선일보의 이같은 질의에 ≪남북문제를 정치에 이용하는 것을 절대 반대다≫ 라고 밝히며 ≪**김정일** 답방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 답방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라고 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 실현은 7천만 민족의 강력한 요구이다. 이회창 총재가 수구보수세력을 대표하는 정당의 총재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선출마를 꿈꾸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민족의 강력한 요구와 희망을 이런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국민적으로 용납할수 없는 망언이다. 적어도 올바른 정치적 지도자라면 전 국민의 일치한 요구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을 실현할수 있는 조건을 함께 만드려는 태도를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동안 민족의 통일과 평화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6.15공동선언에 흠집내기 만을 일삼던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조선일보가 이제 노골적으로 ≪정치적 이용≫ 운운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방문까지 부정하고 나서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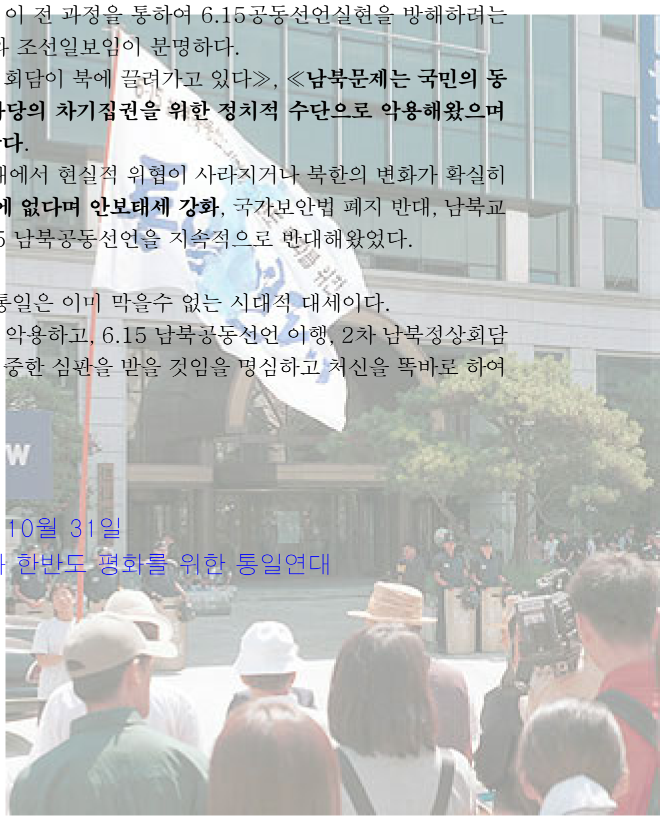
말이 나온 김에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는 말에 대하여 곰곰이 따져보자. 사상과 정견, 계급과 지역의 차이에 관계없이 민족의 염원을 실현하려는 민족공동의 요구를 외면한채 ≪6.15공동선언의 실현이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고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이야 말로 바로 정치적 악용이다. 한나라당은 이렇게 통일문제를 매도함으로써 수구반통일세력을 결집하고 민족의 이익이 아닌 자신이 이익만을 도모하고 있다. 즉 제2차 정상회담성사의 의의 자체를 왜곡하고 무산시키며 이 전 과정을 통하여 6.15공동선언실현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악용의 주체는 바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와 조선일보임이 분명하다.

그동안에도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남북간의 회담이 북에 끌려가고 있다≫, ≪**남북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남북문제를 이회창 한나라당의 차기집권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해왔으며 조선일보는 한나라당의 나팔수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또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현실적 위협이 사라지거나 북한의 변화가 확실히 감지될 때까지는 북한이 ≪주적≫**임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안보태세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남북교류협력법 개악을 민간급 자주교류를 가로막고 6.15 남북공동선언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2차 남북정상회담, 통일은 이미 막을수 없는 시대적 대세이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2차 남북정상회담의 장애를 심각하게 조성한다면 이후 통일시대에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고 처신을 똑바로 하여야 할것이다.



2001년 10월 31일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통일연대≫ 조선일보 상대 반론청구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25일 ≪통일연대 등 일부 방북단에 대한 근거없는 추측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반론보도 심판청구를 서울지법에 냈다.

통일연대측은 청구서에서 ≪조선일보는 평양축전기간 방북단 일부가 **김일성** 밀랍상에 큰절을 하면서 울먹이고 찬양노래늘 부르는 등 돌출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통일연대가 방북 추진본부 내 남남갈등을 야기했다는 추측성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8월23일자 ≪백두산가서 훌륭한 장군님 **김일성** 밀랍상에 큰절≫과 같은달 25일자 ≪통일연대 방북 후유증≫ 등 제하의 기사에서 방북단 인사들의 발언을 인용, ≪**범민련이나 한총련 소속 회원들이 돌출행동으로 물의를 빚고 통일연대가** 추진본부내 갈등을 크게 비화시켰다≫고 보도했다.



≪통일연대≫ 조선일보 거부 운동 본격돌입

≪6 · 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에서는 일부 언론의 반통일적 보도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러한 반통일적 행위에 대해 참여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거리 사진전과 반통일적 보도에 대해 규탄하여 왔다.

특히 ≪통일연대≫는 8.15민족통일대축전 보도와 관련 반통일적 보도에 대표적 신문으로 조선일보를 지목하고, 언론중재위 중재요청를 통해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요청한 바 있다.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국민들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언론의 반통일적 보도행위에 대해 거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조선일보 거부 스티커 부착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지민 2001-10-27
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법률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10월 30일 오후 2시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는 ≪명예회복 법개정을 위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이하 계승연대 상임대표:권오헌 등 5명)≫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연합, 민주노총, 전교조,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등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기자회견에서 계승연대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를 ≪사망, 행방불명, 상이, 질병, 유죄판결, 해직, 학사 징계에 해당하는 자≫ 뿐 아니라 ≪구금, 수배, 강제 징집, 취업거부를 당한 자≫로 확대

둘째, 현재의 심의 적체 해소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현행의 ≪9인 위원 체계≫를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험이나 학식 있는 자로 구성된 11인 위원 체계≫로 개편

셋째, 민주화운동을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활동 뿐 아니라 ≪민족의 단결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활동≫도 포함하도록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규정 확대

넷째,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사면과 복권, 복학, 복직, 명예졸업장≫ 등 실시와 아울러 공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보상금을 현실적인 액수로 정하고, 위로금 항목 신설

계승연대는 위와 같은 요구사항을 여당 및 야당의 공동 발의로 개정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히고 현재 보상법 개정에 정부와 여, 야가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지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으나 2000년 8월 21일 이후 1차 신청에서 접수된 8,440건 중 심의를 마친 건은 2,600여건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날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약 1시간 동안 촉구대회를 열고 심의 지체에 대한 현 정부와 위원회에 대한 성토, 법개정에 대한 의미, 현실적 보상 기준과 지급에 대한 문제, 노동, 민중운동에 대한 심의 지연과 보수세력들에 대한 성토의 내용으로 정치연설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계승연대가 밝힌 지난 기간 법개정 투쟁 경과보고 내용이다.

2000년 11월 8일 계승연대 수련회에서 명예회복위원회 개정안 중심으로 1차안 확정(개념의 구체화, 명예회복 조치 유형의 명문화, 민주화운동관련자 대상자의 확대 등)

11월 중순 지역과 참가단체에서 1차 확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11월 중순 계승연대 대표자회의 논의 후 최종 확정

11월 중순부터 – 지역과 참가단체를 중심으로 법률개정 서명운동의 전개 – 볍률개정 소개 국회의원 서명 작업 진행–김문수의원 등 11월 말 각 지역과 단체에서 전개한 서명 총화

2001년 1월 8일 계승연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김문수 의원 대표 소개로 국회 청원–박정기상임대표 등 접수

1월 9일 계승연대 개정안 입법청원서를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서 행자위로 회부

현재 개정청원안 국회 행자위에서 계류 중

2001년 5월 3일 명예회복 보상법 개정 관련 민주당 시민사회위원회 방문

5월~6월 민주당 이상수 총무/ 한나라당 최연희정책위원장–이부영의원 방문

6월 11일, 6월 25일– 민주당 시민사회특별위원회 심재권의원, 한나라당 대외협력위원장 김영춘의원, 계승연대, 보상심의위원회 4자 간담회

6월 22일 보상심의위원회 개정안 발표(계승연대 개정안을 모태로 순화함)

7월 11일 –자민련 당무회의에서 이홍배위원이 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문제에 대해 ≪4.19, 6.25, 월남참전 등과의 형평성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

– 한나라당 보수의원 모임인 ≪바른통일과 튼튼한 안보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용갑)은 민주화운동 보상법 개정논란과 관련, ≪원칙과 형평에 어긋난다≫v며 반대입장을 밝힘

9월 18일 명예회복법개정 2차 특별위원회 구성 및 중점사안 최종안 확정

– 민주화운동 관련 대상자 범위 확대/위원회의 구성 및 상임제의 운영/사무국 설치/명예회복 조처/보상금 지급 기준/위로금 신설

10월 4일 민주당 원내총무, 제2정조위원장, 시민사회특별위원회, 한나라당 원내총무, 제1정조위원장, 대외협력위원회 법개정 면담 요청 공문 발송

10월 12일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 , 시민사회특별위원회 이희규 위원장 면담

10월 13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실 법개정 면담 요청 공문 발송

10월 20일경 한나라당 목요상의원 대표발의로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한 보상≫을 신설하는 개정안 독자 발의 추진

10월 26일 보상심의위 조준희위원장, 이우정위원의 민주당 한광옥대표 면담 – 유가협 회장단의 보상심의위 조준희위원장 면담–보상금 기준에 대한 검토 희망.

10월 30일 명예회복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 및 촉구대회 개최

서영욱 2001-10-30
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

≪정간법 개정≫ 깃발 달고 자전거로 전국토 달린다

신문개혁국민행동,≪자전거 대행진≫ 29일 출발



신문개혁운동이 민중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고 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신문개혁운동은 자유로를 달리는 7일 마라톤 행사를 시작으로, 9일 언론개혁을 주제로 한 ≪신문고를 울려라≫ 마당극 행사가 펼쳐졌고, 29일부터는 ≪정간법 개정≫의 깃발을 날리는 자전거대행진이 전국을 수놓는다.

신문개혁국민행동(본부장 성유보)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를 출발하여, 11월8일까지 전국 60개 시군, 1500km를 자전거로 달리는 대장정에 들어간다. 언론노조 언개련이 함께하는 ≪신문개혁 촉구 전국자전거대행진≫은 국민들과 직접 만나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소유지분 제한과 편집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신문개혁법 개정≫을 위해 마련됐다.

11월 8일까지 60개 시군 1500km 대행진 함께 참여할 전국주자, 지역주자 모집

이번 행사에는 전국 443개 시민 사회 노동 종교 단체가 참여하며, 30여명의 주자들이 총 길이 1500km. 강원도 지역을 제외한 전국 57개 시군 통과, 평균시속 20km, 하루 평균 140km를 연이어 달리는 대규모 강행군이다. 마지막 날인 8일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자전거대행진 환영 보고대회 및 정기간행물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v가 열린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총선연대의 전국 버스투어 이후 최대의 전국 순회 캠페인이 될 전망이다. 총선연대는 지난 2000년 3월 20일부터 26일까지 6박 7일간 전국 약 2000km를 버스로 순회했었다. 자전거 대행진의 총 거리는 그 때에 못 미치지만 버스가 아닌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국회 앞을 출발한 자전거 행렬은 부평, 수원, 평택, 천안, 대전, 논산, 전주, 김제, 화순, 진주, 창원, 부산, 울산, 경주, 왜관, 옥천, 청주, 분당, 성남 등을 지난다. 전국을 장화 모양으로 도는 셈이다.

광주 전남지역은 11월1일 장성에 도착, 광주 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화순에서 1박한 뒤 2일 주암 옥곡을 지나 하동으로 빠져나간다.

신문개혁국민행동은 이번 자전거 대행진에 함께 할 전국주자와 지역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비나 특별한 준비물은 없다. 전국을 완주하는 전국주자에게는 자전거를 증정한다.

한편 신문개혁국민행동은 언론개혁 마당극 ≪신문고를 울려라≫ 공연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3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공적으로 가진데 이어 지난 14일 전주공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공연에 들어가 광주에서는 11월7일 공연한다.

자전거대행진 참가문의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3142-0700) 언론개혁시민연대(732-7077) 언론노조(739-7285), 신문개혁국민행동 광주전남본부 김광훈(011-682-3668)

이광이 기자 simin@siminsori.com

≪신문개혁 전국 자전거 대행진 성명서≫

≪정기간행물법 개정≫하여 신문개혁 이룩하자 !!
- 전국 1,500km, 11일간의 자전거대행진에 나서며 -



오늘 우리는 전국 1,500km를 11일 동안 자전거로 달리는 ≪신문개혁을 위한 전국 자전거대행진≫에 나선다. 전국 60여개시군을 경유하는 이번 ≪자전거대행진≫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며, 국민홍보 차원의 일회성 행사도 아니다.

우리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전 국민의 뜻과 의지로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할 것이며, 이 ≪자전거대행진≫은 그러한 우리의 다짐과 결단에 바탕한 신문개혁국민행동 443개 단체의 의지가 결집된 절절한 외침인 것이다.

언론은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개인이나 특정 집안의 사유물로 전락해서는 안되며 또한 특정 언론사의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되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언론사 세무조사와 사주구속을 둘러싼 일련의 흐름에서 언론개혁의 대상인 유력 일간지들은 언론개혁을 향한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정당한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이 폄하하고 , 심지어 왜곡보도마저 서슴지 않았다.

우리는 이러한 언론의 보도를 접하며 언론개혁의 당위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을 뿐이다.

진정한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정기간행물법 개정≫ 등 언론개혁관련 법제 개혁이 이뤄져야 하며,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소유지분 제한≫과 ≪경영 투명성 확보≫ 그리고 ≪편집권 독립≫과 ≪독자주권 실현≫의 내용을 담은 ≪정기간행물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전국 1,500km를 온몸으로 달리기에 앞서 다시 한번 국회에 촉구한다.

더 이상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미루지 말라. 더 이상 언론의 눈치를 보지 말라. 언론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얄팍한 속셈도 당장 거둬 치워야 한다. 그것이 국민과 언론을 위한 길이요, 올바른 정치를 위한 정도임을 거듭 강조한다.

우리는 전국 방방곡곡을 자전거도 달리며 언론개혁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알려낼 것이며, ≪정기간행물법 개정≫이 왜 이뤄져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낼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이 행사를 통해 언론개혁이 왜 전국민적인 요구인 것인가를 분명히 확인할 것이며, 전국 투어를 마친 후 국회에 ≪정기간행물법 개정≫ 촉구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언론개혁 촉구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다시 한번 국회가 ≪정기간행물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01년 10월 29일
신문개혁국민행동

5%, 그러나 한판 축제가 벌어졌다

민주노동당-사회당 선거본부의 ≪개표의 밤≫

딱 5% 였다. 이번 10.25재선거에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은 진보정당 명함을 걸고 구로을과 동대문을에 출마했지만 현실정치의 벽은 높았고, 선거결과는 냉정했다.

구로을 개표 결과 사회당 김향미 후보는 1467표(2.68%), 민주노동당 정종권 후보는 1427표(2.61%)를 얻었고, 동대문을 민주노동당 장화식 후보가 1850표(2.91%), 사회당 김숙이 후보가 1152표(1.81%)를 챙겼다.

5% 내외의 지지율. 이는 바로 진보정당을 향한 국민대중의 동의 수준이었다.



높은 현실정치의 벽

25일 밤 11시쯤 찾아간 구로을 민주노동당 정종권 후보 사무실은 축제 분위기였다. 30여명의 운동원들은 맥주잔을 부딪치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했다.

1427표의 지지. 김종철 수행비서는 ≪기대만큼 표가 나오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가능성을 인정받은 선거였다≫며 ≪대중적인 접촉면을 넓혀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정종권 후보는 운동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25일까지의 역할이 기호4번 정종권이였다면 내일부터는 지구당 위원장 정종권으로 돌아가겠다≫며 앞으로 지역사업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다.

정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현 정권에 대한 민중들의 반대가 결국 보수당인 한나라당으로 쏠렸다는 점에 아쉬움이 남는 선거≫라며 ≪한탕주의가 아닌 진보정치의 대장정을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제 민주노동당은 47일간 계약한 지금 사무실을 떠나 새롭게 구로에 둥지를 틀 예정이다. 그들을 지지한 1427표를 안고 현실의 벽을 넘어 긴 대장정을 준비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셈이다.

진보정당 표는 3000표

구로지역 여성인력센터 관장은 구로을 지역 진보정당표는 3000표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 그런데 그 예언은 꼭 적중했다.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의 합친 표는 2894표. 3000표에서 106표가 빠지는 수치다.

25일 밤 11시 30분. 사회당 사무실도 역시 민주노동당과 마찬가지로 축제분위기였다. 아니 당선됐다고 착각이 들 정도로 시끌벅적했다. 50여명의 운동원들이 좁은 사무실에 모여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회포를 풀고 있었다.

김향미 후보는 ≪희망의 근거도 마련했지만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선거였다≫며 ≪지지했던 득표를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모범적인 지구당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후 방향을 설명했다.

김향미 후보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을 어필하고, 정치불신이 심한 유권자들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무한 조직기반, 언론의 무관심과 냉대, 기존 정당에 유리한 법제도 등등 산재한 현실적 장벽 속에서 평당원들의 소액모금을 통해 진보정당은 이번 선거를 치렀다.

그러나 아직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다. 5%의 유권자들의 선택을 필요이상으로 과대포장하지도, 필요이하로 폄하하지 않는 냉정한 현실인식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박수원/노순택 기자 ohmynews@ohmynews.com



이회창 대세론…
6 · 15선언이행에 난관 조성

10.25 재보선을 보고

10.25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3곳 모두 승리했다. 한나라당이 세 곳 모두에서 승리한 데에는 첫째. 재보선 직전에 집중된 한나라당의 정치 공세 둘째. 김대중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 셋째. 경제 상황의 악화 등 여러 가지를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10.25 재보선의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필자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한나라당 승리와 이회창 대세론의 확산 등과 같은 정치 현상이 향후 정국에 미칠 파괴적 결과와 관련된 것이다.

2003년 한반도 전쟁 위기는 있으나 현실가능성은 없다

識者층에서는 2003년 전쟁 위험성을 지적하는 사람이 꽤 있다. 왜 2003년인가?

2003년은 94년 조미 제네바 합의에서 미국이 경수로를 지어 주기로 한 시한이다. 94년의 제네바 합의의 골자는 이북이 중수로형 원자로를 폐기하는 대신 미국이 2003년까지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되어 있다. 이와 함께 경수로 건설 때까지 미국은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이 약속을 거의 지키고 있지 않다. 2003년까지 경수로 건설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며 50만톤의 중유 제공 또한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03년이 되면 이북이 다시금 기존의 중수로형 원자로에 기초한 외교전을 본격화하고 이 외교전은 첨예한 군사적 대결로 번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2003년이 주목받는 두 번째 이유는 2002년 대선의 결과이다. 만약 대선에서 이회창이 당선되면 부시 행정부의 강경 라인과 호응하여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에 무분별하게 편승할 것으로 보는 것이다. (한국의 친미파는 이북에 대해 미국보다 적대적이고 미국에 대해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경우가 흔하다. 최근 월간 조선에서는 오사마 빈 라덴과 이북의 연계설을 신빙성있게 다룬 바 있다. 이는 미국에게 이북을 공격하라는 주장과 다름 없다)

솔직히 말한다면 필자의 판단으로는 2003년 전쟁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첫째는 이북의 군사력은 91년의 이라크나 99년의 유고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수준이다. 둘째는 중, 러의 행보 등 동북아시아의 국제 역학이다.

문제는 이회창 당선이 빚어낼 가능성들

문제는 이회창이 당선되었을 때 빚어질 다음의 가능성이다.

6.15 선언은 민족 공조를 중심으로 통일조국을 건설하자는 약속이다. 한반도에서 통일조국의 출현은 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배타적인 주도권 행사와는 정면에서 충돌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인위적인 긴장을 조성하며 6.15 선언의 이행을 가로 막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회창은 미국의 이러한 기도에 동조해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6.15 선언의 파탄 또는 심각한 난관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이회창의 당선은 보수수구 세력의 정치적 합법화를 의미한다. 70년대 반유신 투쟁, 80년 광주항쟁과 6월항쟁, 95년 전두환, 노태우 구속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는 민주개혁이 긍지와 자부심으로 되어 있다.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투옥된 경력은 약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세우고 싶은 강점으로 작용했던 것은 국민 대중의 마음속에 민주개혁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러한 민주개혁의 성과를 자주와 통일로 승화시켜야 할 순간이다. 이회창의 당선은 민주개혁 세력이 운동의 성과를 민족의 화해와 단합, 자주와 통일로 승화시키는 데서 커다란 좌절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과거에는 독재와 부패의 편에 동조했던 보수수구 세력이 이제는 분단과 대결의 허울을 쓰고 재기에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중간층은 패배와 실의에 잠기고 민중 운동은 고립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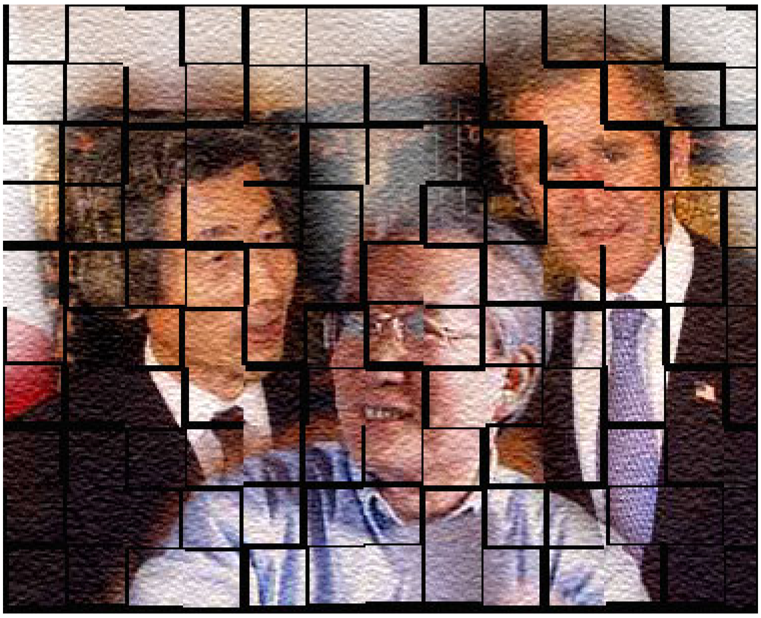
10.25 재보선의 결과는 의외로 심각하다. 핵심은 한나라당이 국회의원 3석을 늘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회창 대세론이 확산되면서 주로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회창에 줄서기하는 사태이다. 이렇게 해서 보수수구 세력이 정치적으로 득세하는 경향은 6.15 선언과 통일조국 건설에 중대한 난관을 조성할 것이다.

6.15 선언 지지.이행의 기치를 확고히 들고 민족의 대결과 반목을 부추기는 자들과 정면에서 맞서 싸워야 한다.

민경우 기자 bum815@korea.com

외세와 반통일세력을 척결해야한다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0월 22일～24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온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온 겨레가 외세의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하는 반통일세력을 반대해서 투쟁해야 한다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세의 지배와 간섭은 우리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로 되고 있는데요. 외세에 의해서 우리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외세의 지배와 간섭때문에 오늘까지도 나라와 민족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단일민족을 분열해서 통치하는 건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죠. 미국은 조국통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절절한 소망과 요구를 무시하고 자주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지배하려는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민족 내부의 반목과 불화를 조장하고 이남의 반통일세력을 동족과의 대결에로 부추기며 이땅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고 끊임없는 군사훈련과 무력증강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늘 남과 북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민족대단결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배아파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 가로막아보려고 각방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의 문을 열어나갈 것을 다짐한 6.15남북공동선언은 온 민족과 세계의 열렬한 지지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을 1년이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인정하려하지 않고 있고 그 이후에는 여러모로 방해해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무슨 상용무기축감이니 미사일문제니 하면서 대북강경정책으로 이북을 압살해보려고 분별없이 책동하고 있고 남북관계를 냉전시대로 되돌려세우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땅에 또다시 냉전의 기류가 떠돌고 전쟁위험이 조성되고 있는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남의 반통일세력들은 미국의 이러한 침략책동에 추동해서 우리 민족끼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해 나갈데 관한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방해하고 안보니 공조니 하면서 외세의존과 남북대결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어요. 온 겨레가 벌이고 있는 민족대단결운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들은 외세와의 공조를 애걸하며 동족을 모해압살하려고 간교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동족을 원수로 대하고 외세를 벗으로 삼고 손을 잡는 이런 자들에게 통일의지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민족과 동지를 적으로 삼는 이런 자들은 예외없이 민족반역자들입니다. 이런 자들 때문에 우리 나라의 통일이 늦어지고 있는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이남에는 아직도 동족을 주적이라고 하면서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을 이적으로 낙인해서 감옥으로 끌어가는 반통일적 책동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뜨거워지는 민족적 단합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남북관계와 통일의 앞길에 어두운 그늘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은 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할수 있는 넓은 길이 열리고 제반 조건이 마련됐다고 해도 내외의 온갖 반통일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을 적극 벌이지 않고서는 민족대단결을 이룩할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외세의 지배와 간섭, 그에 추종하는 이땅의 반통일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견결한 투쟁을 힘있게 벌일때만이 남북의 단합과 민족의 대단결도 실현할수 있는거죠. 남과 북, 해외 온 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는 거족적인 투쟁을 벌여 민족적 단합과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근원을 철저히 없애야 합니다.

이와 함께 나라와 민족의 운명보다 일신의 부귀와 권세를 위해 외세와 결탁하는 민족반역자들의 반통일행태, 민족분열책동을 반대해서 적극 투쟁해야 하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이땅의 각계층 민중은 민족의 대단결을 위하여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반대하고 외세와 결탁한 이땅의 반통일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일떠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운동탄압책동 투쟁으로 박살내자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0월 24일～26일



지금 노동대중을 비롯한 각계 민중들속에서는 검찰당국의 노동운동탄압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이 날이 갈수록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13일 민주노총은 서울과 울산 등 전국 13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집회를 열고 단병호위원장을 비롯한 구속노동자석방과 검찰의 노동운동탄압중지를 요구했고 이에 앞서 10일에는 전국 19개의 시, 도의 민주당사앞에서 동시다발집회를 가졌습니다. 노동대중의 이같은 투쟁은 지극히 정당하다 하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 우리 노동자들의 처지는 이루 다 말할수 없이 비참합니다.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경제화로 인한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 실업자로, 비정규직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수백만에 달하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삶과 죽음의 계선에서 신음하고 있고 우리의 미래인 노동자의 자녀들이 고아아닌 고아가 되어 한데에서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들은 세계화의 간판밑에 가해지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독점자본과 악덕재벌들의 착취와 횡포로 말미암아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미치는 저임금과 장시간의 노동과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비참한데요. 그들은 비정규직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정규직임금의 절반도 못되는 돈을 받으며 각종 수당과 월연차휴가, 산재보험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있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리휴가마저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노동자들이 어찌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묵묵히 감수하고만 있을수 있겠습니까. 우리 노동자들이 살인적인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반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인상 등 생존권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선 것은 지극히 올곧고 정당합니다.

그런데도 검찰과 경찰당국은 노동자들의 의로운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수많은 노조간부들과 핵심들을 체포구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같은 책동은 우리 노동자들과 각계 민중의 더욱 큰 분노만을 자아내게 될 겁니다.

최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카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등 종교계가 단위원장석방위원회를 조직하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지지연대해 나서고 있는 것은 이를 웅변해주고 있죠.

검찰과 경찰당국이 아무리 노동운동탄압에 광분해도 결코 우리 노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1,300만 노동형제들은 민주노총의 주위에 더욱 굳게 뭉쳐 공안당국의 노동운동탄압책동을 단호히 짓부셔야 합니다. 민주노조들과 경향각지의 현장조직들은 검찰과 경찰당국의 탄압으로부터 조직과 운동핵심들을 보호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 보다 광범위한 대중을 노조의 주위에 굳게 결속시켜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와 함께 합법적 투쟁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노동대중을 불러일으켜 검찰과 경찰당국의 탄압책동에 강력한 반격을 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별, 산별, 기업별 연대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이는 한편 농민, 청년학생, 종교인 등 각계 민중과 어깨겯고 공동의 단합된 힘으로 검찰과 경찰당국의 노동운동탄압책동을 박살내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당국은 노동대중과 각계 민중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민주화와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노동운동탄압책동을 즉시 중지하고 구속된 노동자들을 무조건 석방해야 할겁니다.

네, 어느덧 낙엽이 지고 겨울이 다가옴을 알리듯 마가을의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신자유주의구조조정으로 800만에 달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생계걱정을 해야하고 수백만의 실업자들이 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엄혹한 겨울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겨울, 우리 노동대중은 앉아 울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민중생존권쟁취의 뜨거운 열기로 노동운동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투쟁의 겨울로 만들겁니다.

한총련강화는 현실의 절박한 과제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0월 22일～23일



아! 너희들이 피로 적시며 땀을 뿌려가는 땅
지금은 빼앗기고 짓밟혀 붉은 심장 끓이며
자주, 민주, 통일을 부르고 있는 이땅에서

창창한 미래를 열어가는
자랑스런 한총련의 그 기상이
애국의 얼과 뜻과 함께 뜨겁게 너희들 모습에 어려있어

아! 또한 조국이 너희들을
기대와 믿음과 애모를 담아 지켜보고 있는 것이여서
나도 쳐다보는 것이다 심장의 피를 함께 끓이며

네, 서울시 동작구에 사시는 이모씨의 시 ≪열차칸에서≫를 간추려 몇 대목 읊어드렸는데요. 한방울의 물에도 온 우주가 비낀다는 말이 있듯이 정말 짧은 이 한편의 시를 통해서도 우리 청년학생들에게 거는 민중의 기대가 얼마나 큰가 하는걸 잘알수 있어요. 그를 두고 보답하자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생운동의 사령탑인 한총련을 강화하는게 아닐까요. 학생운동가 최모씨의 글 ≪한총련강화는 현실의 절박한 과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북의 주동적인 조치에 의해 마련된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을 계기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한편 미국과 민족분열주의세력은 온갖 못된 짓을 일삼으면서 좋게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발표 이전의 대결원점으로 되돌려 세우려고 책동하고 있다.

한마디로 오늘의 정국은 미국과 민족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분쇄하고 6.15공동선언이행으로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고 할수 있다.

이같은 현실은 청년학생들로 하여금 언제나 그러했듯이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선봉에서 시대앞에 지닌 중임을 다해 나갈 것을 절실히 요청하고 있다. 오늘 한총련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더 절박한 과제로 나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날이 갈수록 더욱 힘차게 벌어지는 청년학생들의 투쟁이 알찬 열매를 맺는가 못맺는가 하는 것은 한총련의 역할과 크게 관련된다. 한총련이 변천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학생운동을 책략적으로 전개해나갈때 청년학생들의 투쟁에서는 더 빛나는 성과들이 이룩될 것이다.

한총련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의 절박한 과제로 되는 것은 학생운동말살을 노린 민족분열주의세력의 탄압책동이 그 어느때없이 악랄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날로 높아가는 겨레의 통일열기에 짓눌려 총파산의 위기에 직면한 분열주의세력은 그로부터의 살길을 6.15공동선언을 무력화하고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적극화하는데서 찾고 있다. 반통일세력이 학생운동말살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 있는 것도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선 한총련을 초토화함으로써 이땅에서 통일열기를



냉각시키고 각계각층 민중들과 운동단체들의 투쟁진출을 차단해 보려는데 그 범죄적 흉계가 있다.

이같은 탄압책동은 학생운동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한총련의 활동에 많은 애로와 난관을 조성하고 있다. 모든 청년학생들은 분열주의세력의 탄압책동이 악랄해질수록 더욱 한총련의 주위에 굳게 뭉치고 그 조직력과 투쟁력을 배가함으로써 불패의 애국대오로써의 한총련의 사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총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운동핵심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대중을 의식화하고 조직적으로 결속시키며 그들을 투쟁의 장으로 이끌어내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운동핵심이다. 한총련탄압에 광분하는 반통일세력이 그 주되는 예봉을 운동핵심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모든 운동핵심들은 한총련강화에서 맡고 있는 중임을 자각하고 정치사상의식수준과 실무적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어떤 정세변화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승리와 자랑으로 수놓아진 학생운동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나갈수 있으며 그 시대적 환경에 걸맞는 효율적인 운동전술을 구사해서 학생대중을 능숙하게 지휘해 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운동핵심들은 넓은 아량과 포옹력, 따뜻한 인간미를 지니고 더많은 청년학생들을 한총련의 주위에 결속시켜야하며 그 어떤 시련에도 대중을 이끄는 능숙한 선도자, 작풍좋은 조직자, 실천력있는 집행자가 되어야 한다.

반통일세력들의 한총련말살책동을 분쇄하는 것은 학생운동강화에서 나서는 초미의 문제이다. 청년학생들은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철회와 활동의 합법화를 요구해 투쟁의 목소리를 더욱 높여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해 계속 줄기찬 투쟁을 벌여야 한다. 지난 8월 2001년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던 방북단의 일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이 보여준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과 같은 반통일적인 파쇼악법이 존재하는 한 통일애국인사들과 우리 청년학생들에 대한 탄압이 종결될수 없고 6.15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될수 없다. 청년학생들은 구호제시, 백서발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국가보안법철폐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분열주의자들의 탄압으로부터 핵심을 보호하는 것은 한총련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투쟁과제이다. 모든 청년학생들은 과감한 투쟁으로 한총련간부들에 대한 부당한 파쇼적 수배, 구속책동을 짓부셔버려야 하며 한총련의 핵심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적극 보호해야한다.

실천투쟁을 힘있게 벌이는 것은 한총련강화를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강철이 불속에서 단련되듯이 실천투쟁속에서 청년학생들은 통일의 역군으로 더욱 억세게 자라날 것이며 조직의 귀중함과 단결의 위력도 더 잘 인식할수 있다.

한총련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구축반대투쟁과 양민학살진상규명운동과 같은 현시기의 쟁점으로 되고 있는 투쟁들에 주력하면서도 새로운 투쟁안건들을 더 많이 제기하고 완강히 실천해 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이행으로 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오늘의 시대는 통일선봉장인 열혈청춘들의 투쟁의 젊음에 있다.

한총련은 각계층 민중을 6.15공동선언관철투쟁에로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식화활동을 계속 끊기있게 밀고 나가야 하며 특히 6.15공동선언을 무력화시키려는 안팎의 분열주의세력들의 책동을 철저히 분쇄해 버려야 한다. 조선일보불매운동, 이회창바로보기운동, 이회창에 대한 신고전화받기운동 등 다양한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전개하여 분열주의자들의 손발을 얽어매놓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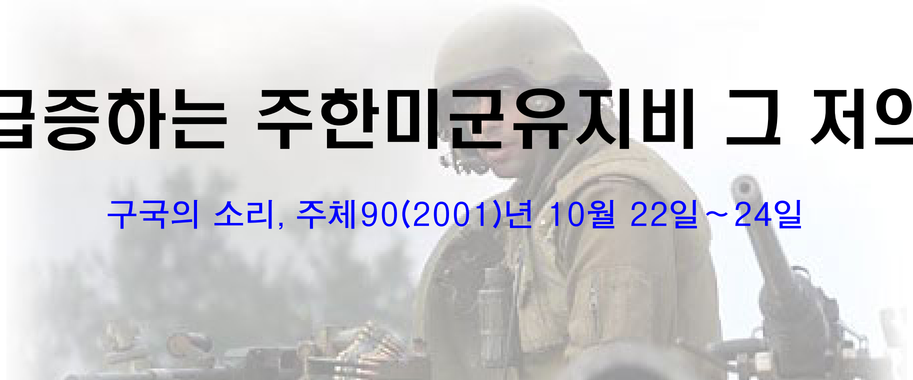
각계각층 단체들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투쟁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모든 활동을 각계층 대중단체들과 연대해 진행해야 투쟁에서 고립분산성을 극복하고 민중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수 있으며 자기의 사명과 역할도 더욱 원만히 수행할수 있다.

한총련은 투쟁에서 동요한다고 하여 외면하고, 소수라고 하여 경원시하며, 적극성이 없다고 배척하고, 약점이 있다고 배제할 것이 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단체라면 과거불문의 원칙에서 굳게 손잡고 나가야 한다.

청춘이 바로서야 조국이 바로 선다. 이땅에서 6.15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선 청년학생들의 역할과 크게 관련된다.

한총련은 민족과 민중이 부여해준대로 21세기를 떠밀고 나갈 민족의 희망이며 미래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6.15공동선언관철을 위한 투쟁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네, 학생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최모씨의 **가 글줄마다에서 뜨겁게 어려옵니다. 우리 모두는 더 많이 사색하고 당당하게 실천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동전략과 전술로 투쟁에서 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는 것으로써 각계 민중의 기대에 보답해야 할겁니다.



급증하는 주한미군유지비 그 저의

구국의 소리, 주체90(2001)년 10월 22일~24일

미국은 반세기이상이나 이땅에 틀고 앉아 주인행세를 하면서 약탈과 간섭, 학살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알고 있지만 미군기지만해도 이땅에 120개, 그 면적은 1억평이나 됩니다. 약탈로 챙기는 이득금은 말할 것도 없고 주한미군유지비명목으로 받아내는 돈만해도 지난 50여년동안 1천억달러가 된다고 그럽니다. 원조자의 탈을 쓰고 이땅에 기어들어 경제적 침탈과 정치적 예속을 일삼는 미제의 만행 더이상 참을수가 없다 하겠죠. 그럼 이번엔 ≪급증하는 주한미군유지비 그 저의≫ 김현규씨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 최근 미국이 한국에 내년도 주한미군유지비를 올해보다 더 늘리도록 강요해서 우리 민중의 거센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급증하는 주한미군유지비 그 저의≫ 이런 화제로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김현규 : 아시다시피 최근 한미당국은 내년도 주한미군유지비를 올해 4억 4천만달러로부터 5억 4천만달러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건 내년 주한미군유지비가 올해보다 1억 4천만달러 더 많은 것으로 되는데요. 지금 경제형편이 악화되고 도처에서 무리로 실업자가 생기는 등 극심한 혼란상태가 빚어지고 있는 때에 엄청난 국민혈세를 또다시 미국에 바쳐야 하는 이런 개탄할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미국은 지난 50여년간 한국당국자들을 강요해서 주한미군유지비의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직접 받아내고 있잖아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1995년부터 3억달러를 넘기 시작한 주한미군유지비는 1996년에는 3억 3천만달러, 1997년에는 3억 6,300만달러, 그리고 1998년에는 3억 9,900만달러, 올 2001년에는 4억 8천만달러, 내년에는 5억 8천만달러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직접비의 명목으로 한국에서 걷어가는 액수로써 유지비총액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회자 : 미국은 이땅의 부동산을 사용료도 내지않고 마음대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얻게 되는 간접비를 통해서도 막대한 이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김현규 :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미군은 이땅에 120여개의 군사기지를 갖고 있습니다. 동두천과 의정부를 비롯해 휴전선근처는 물론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군산, 김해, 평택, 춘천, 오산 그리고 하남 등 한국의 방방곡곡에 미군기지가 수백만평이나 설치되어 있어요.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기지의 면적을 합치면 1억평이나 됩니다. 주한미군의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9억 9천만달러로 거의 20억달러에 달합니다. 그런가하면 미군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훈련장비용은 연간 1,100만달러, 세금을 내지 않고 사용하는 군사시설비는 연간 1억 3,800만달러나 됩니다. 미군이 1997년 한해에 받은 간접비는 22억 9,500만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미군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빼앗아내는 직접비와 무료로 사용하는 군사기지, 시설비, 그리고 그 관리유지에 드는 인건비, 훈련장사용비 등 간접비를 합치면 주한미군유지비는 연간 30억달러가 넘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난 50여년동안 주한미군유지비명목으로 받아낸 돈은 무려 1천억달러가 넘습니다.

사회자 : 우리 민족, 민중은 언제한번 미국에 해되는 일을 한적도 없거니와 한푼도 빚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더욱이 미군의 한국강점을 요청한 적도 없었죠. 그런데 미국은 반세기이상이나 이땅을 틀고 앉아서 주인행세를 하면서도 오히려 주한미군유지비까지 받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후안무치한 날강도가 또 어디에 있는가 말입니다.

김현규 : 없죠. 미국은 세계 여러 곳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지만 한국에서와 같이 치외법권적인 전횡을 일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미군의 주둔이나 미군사기지의 설치를 제한부로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군사기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나라의 법적 승인을 받고 기지사용료를 지불하지만 한국에서만은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체결하고 그에 의거하여 임의의 지역과 영토, 시설을 임의의 시각에 마음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미국이 필리핀에서 클라크공군기지와 트리플해군기지를 사용하는 댓가로 그 나라에 해마다 7억달러를 지불한 것만 봐도 잘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에서 기지사용료 지불은커녕 해마다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돈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자 : 정말 통탄할 일이라고 봅니다. 무려 1억평이나 되는 제나라땅을 미군기지로 빼앗기고도 기지사용료를 받기는커녕 거액의 돈을 미군유지비로 고분고분 섬겨바쳐야 하니 말이죠. 지금 이땅에서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파동에 눌려 많은 사람들이 실업의 나락에 빠져들고 있고 빚에 눌려서 자살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우리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돈을 주한미군유지비로 받아내고 있고 또 해마다 그 액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왜 주한미군유지비를 계속 늘리려고 책동하고 있는가 하는건데요.

김현규 : 한국을 발판으로 해서 전 한반도를 병탄하고 나아가서 아시아대륙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려는 것은 미국의 변함없는 침략전략인 것입니다. 이로부터 미국은 한국에 근 4만명의 미군을 두고 있으며 그의 군사장비를 체계적으로 개선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유지비를 계속 늘리고 있는 것은 바로 대한반도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병력을 증강하고 군사장비를 현대화하며 군사기지와 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북침전쟁연습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여 기어이 한반도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자 : 이건 우리 민중을 희생시키는 댓가로 저들의 침략야망을 기어이 이루어보려는 검은 속심에서부터 출발한 것이죠. 우리 민중은 우리의 피와 땀이 동족을 멸살시키는 침략전쟁준비에 악용되는걸 절대로 용인할수 없습니다. 이땅의 미군을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민중이 불행과 고통, 재난을 면할수 없고 나라의 통일도 이룩할수 없으며 새 전쟁을 피할수 없죠. 각계 민중은 우리 겨레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 재난만을 가져다주는 미군을 이땅에서 철수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전국합동위령제 및 전국유족회 재창립대회

우리사회의 평화와 인권, 통일을 바라는 60여개 단체가 함께하여 지난 10월 22일 발족한 민간인학살 공대위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해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에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을 국회의원 48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전국에 흩어져 있던 유족들도 반백 년 동안 가슴에 묻고 살았던 한을 이제는 밝혀내고야 말겠다며 하나로 뭉쳐서 전국유족회를 재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살이 일어나고 50여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곳곳에서 모인 1,000여명의 유족들이 다함께 전국위령제를 거행하게 되었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1. 민간인학살 희생자 전국합동위령제 및 전국유족회 재창립대회
일시 : 2001년 11월 5일(월) 오후 2시
장소 :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
참가자 : 전국 1,000여명의 유족과 시민단체 여러분

2. 민간인학살 특별법제정을 위한 대규모 거리행진 및 천막농성
일시 : 2001년 11월 5일부터
장소 : 여의도 문화공원

민간인학살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한상범 공동대표 권종대 김금수 김상찬 김영만 김영훈 김정기 단병호 문규현 오종렬 유상덕 윤순녀 이규희 이이화 이종린 임헌영 정광훈 진관 현기영 홍근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전국유족회(준)
공동대표 김상태 서병규 송철순 송영길 이재기 이태준 이창근 채의진

양심수석방과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목요집회 400

93년 9월23일, '양심수석방'과 '국가보안법철폐'를 외치며 목요집회를 시작하여 어느덧 9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 넘게 갇혀있는 장기수들의 존재를 알리고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감옥으로 끌려가는 양심적인 인사들의 자유를 위해, 50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을 고문하고, 가두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국가보안법을 없애기 위해 목요일의 행렬은 시작되었습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보랏빛 머리수건을 두르고, 감옥에 갇힌 자식의 사진을 품에 안은 채,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고, 때로는 소리 높여 분노하기도 하며, 정부당국에 촉구해 왔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오랜 세월 계속 될 거라고 생각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옥이 텅 비어 백기가 펄럭이는 날까지 이 행렬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감옥 독방에 갇혀 우리를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자식들을 저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짓밟히는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기에,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작은 씨앗을 만들어 가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비가오나 눈이오나 추운겨울에도 한번 거르지 않고 목요집회를 이어온 결과 우리는 작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늙고 아픈 몸이지만 우리들의 작은 외침이 메아리가 되어 감옥문을 조금씩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3, 40년씩 갇혀 있었던 장기수들이 석방되고, 많은 양심수들이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온 목요집회가 어언 400회를 맞이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동안 고생을 위로하며 자축연이라고 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감옥에는 137명(2001년 10월8일 현재)의 양심수가 갇혀있고, 한총련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배자가 되어버린 수많은 한총련 대의원들이 언제 감옥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국가보안법을 고치겠다던 말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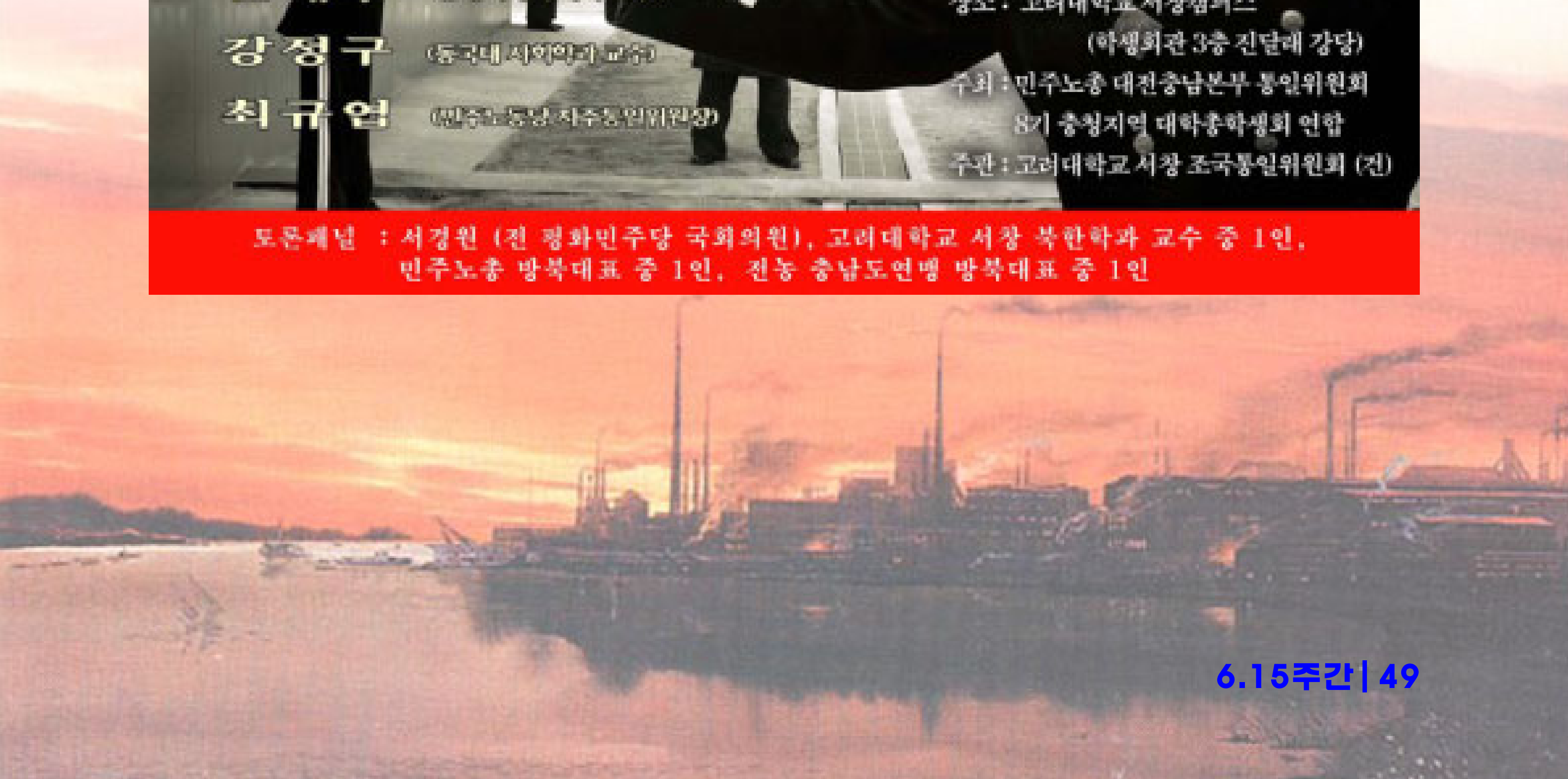
십 수년 세월동안 한결같이 양심수의 존재를 알리고 석방을 외쳐온 어머니의 힘.
400회 목요집회를 이어온 어머니의 힘.
그 어머니의 힘으로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폐지를 이루는 그날까지 목요일의 행렬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수석방과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목요집회 400
2001년 11월1일(목) 오후2시. 탑골공원 앞





주체사상의 역사적 출현과정과 그 구성체계, 주체사상이 이북사회에 미치는 영향 - 정치, 경제, 군사, 문화, 한국사회는 주체사상이 금기시 되어야 하는가
금기를 넘어
민족을 이해하자
주체사상 학술토론회
국가보안법
김남식 (통일뉴스 상임고문, 경실련 통일협회 고문)
안재구 (전 경북대 수학과 교수)
강정구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최규엽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
일시 : 2001년 11월 1일 (목) 오후 2시
장소 :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학생회관 3층 진달래 강당)
주최 :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 통일위원회
8기 충청지역 대학총학생회 연합
주관 : 고려대학교 서창 조국통일위원회 (건)
토론패널 : 서경원 (전 평화민주당 국회의원), 고려대학교 서창 북한학과 교수 중 1인,
민주노총 방북대표 중 1인, 전농 충남도연맹 방북대표 중 1인





금강의 가을을 그리며

-이화여대 이숙씨의 자작시-

남산에도, 속리산에도
곱게 물들은 단풍을 보며
저도 몰래 눈앞에 떠오르는 절경
단풍이 유명하여 풍악산으로 부르는
가을의 금강이여

봄내 여름내
새소리, 바람소리에도 친숙해져
소리쳐 부르면 대답할 듯 싶은 명산
너의 가을에 흠뻑 취하고 싶어
소중한 추억들을 단풍잎에 물들여보네

꽃피는 봄날에 열린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행진
김정숙휴양소 뒷뜰에도
지금쯤은 단풍 붉게 타겠지

신록이 무르녹는 여름에 열린 6.15민족통일대토론회
그날에 남북대표들도 손잡고 올랐던
잊지 못할 구룡연등반길
통일의 노래 울려 퍼지던 골과 골, 봉과 봉마다에도
단풍은 빨갛게 물들었겠지

구면 친구마냥 얼싸안으며
남북의 농민대표 모여들던 곳
대지를 가꾸던 그 마음으로
통일의 화원을 가꾸자 맹세 다지던 그곳들에도
단풍이 한창이겠지

단풍에도 올해 금강의 단풍은 유다르리라
불길처럼 타오르는 통일열망
남북의 마음과 마음되어 그대로 붉게 물든 단풍
용암처럼 끓는 통일의 의지
남북누리에 펼쳐 가는 빨간 단풍

봄, 여름 남북화합의 결의들을
세계명승 금강산에 마련하시며
통일의 꿈나무 자래워주신
김정일장군님의 높은 뜻으로 불타는 단풍이여

통일강성대국의 풍만한 가을을
겨레의 가슴 가슴마다에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주는 가을의 금강
아! 보고싶은 통일의 금강이여!

주체 90, 10월 21일

김정일장군님의 역사적인 러시아방문을 수록한 다규멘터리 영화녹화물이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공단과 대학가들에서 널리 방영되고 있어 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교원간의 위화감조성 등을 이유로 교원성과급지급을 반대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성과급반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최근 교원성과급제철회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습니다.

전교조는 지난 10일 서울 종묘공원과 전국 16개 지부별로 교육시장화저지와 교육재정확보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집회를 가졌습니다.

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이 낙동강생태복원을 위해 낙동강대장정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각계에서 반통일분자인 이회창을 제거해야한다는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18일 지난 8월 평양에서 진행된 통일대축전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방북했던 범민련남측본부 서울 부의장 문재룡씨에 대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19일 형정지로 석방되었다가 다시 구속된 단병호민주노총위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육군항공작전사령부가 주관하는 이른바 육군항공공중사격대회가 18일부터 **사격장에서 개막돼 다음달 3일까지 강행됩니다.

이 공중사격대회에는 항공작전사령부 예하 31개 항공대대가 참가해 주야간 사격실력을 겨루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대테러보복전쟁과 관련해 전군에 비상경계태세가 내려진 가운데 군부가 공중사격대회까지 벌여놓은 것은 매우 심상치 않은 것으로써 남북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지난 12일 카트만두에서 진행된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네팔 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 참가자들이 편지를 드렸습니다.

2002년 태양절기념 및 2.16경축 네팔 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2일 카트만두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56돌에 즈음해 지난 9일 에티오피아 공보 및 문화상이 자국 주재 이북대사관에 축하방문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선로동당은 영광스러운 ≪ㅌ.ㄷ≫**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형의 혁명적 당이다≫의 요지를 이집트 신문 ≪알** 시아이≫ **지난** 14일자가 게재했습니다.

미상하양원이 탄저균검사로 22일까지 의정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미의회가 의정활동을 포기하고 문을 닫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경제력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력의 상징인 펜타곤에 이어서 미국의회가 또다시 탄저균테러로 문을 닫자 미국민들과 언론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러에 대한 보복이 또 다른 테러를 낳는 이같은 악순환의 연속은 미국사회를 끝없는 불안과 공포속에 몰아넣게 될 것입니다.

주체 90, 10월 22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강원도 수해지역 민중들에게 선물을 보내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등 4개 인권사회단체들은 19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대통령에게 경찰중립화 등 경찰개혁의 공약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공안2부는 19일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을 구속기소하는 폭거를 감행했습니다.

미국대통령부시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또다시 북을 자극하고 위협하는 망언을 늘어놓은데 대해 각계에서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통일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모씨는 부시가 이북이 6.15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오도한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바와 같이 북은 지금까지** 6.15공동선언을 조국통일의 이정표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온갖 조치를 취하는 등 성의를 다 보여주고 있다. 북의 이런 노력에 의해 남북간에는 장관급회담과 이산가족교환방문과 같은 여러 갈래의 대화와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수 있었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추진할수 있었다. 그런데 미국이 북의 이같은 진정을 모독하고 나선 것은 도둑이 매를 드는 것보다 더한 것이 아닐수 없다. 6.15공동선언이행에 제동을 걸고 남북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돌려세우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시정권이다. 올들어 6개월동안이나 남북관계가 동결되게 된것도 부시정권이 출범후 북을 겨냥한 엠디체계수립책동을 비롯한 대북압살책동에 광분해왔기 때문이다. 이건 남북관계에 차단봉을 내려놓고 있는 진범인이 다름아닌 부시정권이며 미국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암적존재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부시가 북때문에 남북관계가 제대로 안된다고 떠드는 것은 아메리카제국주의의 파렴치한 작태라 아니할수 없다.≫

재야인사 박모씨는 부시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쟁을 수행하는 기간 북이 오판을 해서는 안된다느니 뭐니하며 북을 위협하고 나선 것은 흑백을 전도한 궤변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북을** 항시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을 감행하면서 이땅에 미공군력을 보강해 북을 위협하고 나선 것도 미국이고 또 북을 어떻게 하나 이번 테러사건과 연계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미국이다. 지금 미국은 저들이 강행하고 있는 이른바 보복공격을 아프가니스탄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후원국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폭언하고 있는데 실제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의 불씨가 한반도로 옮겨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지워버릴수 없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깨려는 미국에 대해 각성을 느껴야 한다. 미국은 있지도 않은 **를 들고 이북을 위협해 한반도정세를 긴장시키는 못된 짓을 당장 중지해야할줄 안다.≫

경기침체가 계속돼 내년 3월까지 고용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의 경기둔화와 노동시장동향이라는 보고회에서 미국의 보복전쟁으로 각국의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수출과 경제성장률이 하락해 내년 3월까지 고용환경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대도시지역의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 제2단계건설 착공식이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높이 모신 삼지연대기념비교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중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이남에서 비상경계조치가 취해져 인도주의적 문제해결에 장애가 조성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1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이남에서 비상경계조치를 취하는 등 인도적 문제해결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고 제811호를 발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당창건 56돌에 즈

음해 마다가스까르 노동투쟁당 전국위원장이 8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주체 90, 10월 23일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사는 주민 박모씨가 **김정일**장군님께서 펴시는 사랑의 인덕정치를 열렬히 동경했습니다.

명동성당에서 단병호위원장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온 민주노총이 대전역 등 전국 14곳으로 농성을 확대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7개 교수단체가 지난 2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개혁을 촉구하는 교수 1만인서명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에 따라 부패사학의 척결과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부당해직교수들의 원상복직, 계약제, 연봉제철폐 등을 위해 대대적인 서명운동과 토론회를 갖는 한편 오는 11월중으로 전국교수대회를 개최키로 했습니다.

중등교사자격증소지자를 초등교사로 임명하려는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교육대학 4학년생들이 올해 임용고사거부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임용고사거부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중연대 등 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보복전쟁반대평화실현연석회의는 20일 오후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동시집회를 열고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미국측에 촉구했습니다.

국내 최대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산업단지에서 최근 한달사이에 벌써 3차례나 폭발사고가 잇따라 일어나 인근 주민들마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서울과 부산, 경남북지역 등에서 각종 테러대비태세를 점검한다는 미명하에 23일부터 2001 후반기 화랑훈련을 벌여놓았습니다.

민관군합동으로 2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은 예년과 달리 공중테러나 지하철역 독가스테러 등 유형별 테러상황에 대한 대비태세와 도시기반시설 방어태세에 역점을 둔다고 합참은 누누히 설명했지만 전군과 경찰에 비상경계태세가 내려진 가운데 계속되는 이같은 전쟁연습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격화시켜 남북관계를 보다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것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김책공업종합대학 학위학직 소유자들에게 선물을 보내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 국제과학기술도서전시회가 22일 인민대학당에서 개막됐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을 찾아 22일 이북을 방문한 중국인민해방군 외사일군 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인사들이 경모의 정을 표시했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56돌에 즈음해 중국 연변인민출판사에서 도서 ≪**김정일**위인상≫ 1, 2를 펴냈습니다.

아펙정상회의는 21일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국제적 협력을 통해 테러를 반대하자는 내용의 반테러공동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공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나 합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부시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공격과 관련해 국제적인 냉대를 받은 것입니다.

더욱이 이슬람교도가 있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심한 반발을 듣고 중국으로부터도 빨리 끝내라는 전제를 받는 등 미국은 아프가니스탄공격과 관련해 여러 나라들의 비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공습이 보름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민간인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일 아프가니스탄공습을 계속하고 있는 미군은 21일에도 수도 카불남부 칸다하르에 맹폭격을 가해 민간인 10명이 숨졌습니다.

탈레반 최고지도자 오마르의 10살 난 아들도 미군의 공습을 받아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관영 ≪아이알 엔에이≫**통신은 미국의 아프가니스탄폭격으로 지금까지 민간인** 1천여명이 숨졌다고 탈레반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집권 탈레반은 22일 미군 제트기가 아프가니스탄 서부 **시의 한 병원을 습격해 환자 등 100여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주재 탈레반대사는 이번 공격으로 환자와 의사, 간호사 등 1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미군기들이 고의로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명백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박타르≫**통신의 사장도** 미군기들이 **시지역에 대한 공습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환자와 직원들로 가득찬 병원이 공격을 받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탄저균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5명의 환자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시엔엔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주체 90, 10월 24일

서울시 용산구에 사는 퇴역장교 박모씨가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높이 격찬했습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해 미군의 무차별 폭격등으로 전국에서 73건에 걸쳐 모두 2만 3,000여명이 학살됐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됐습니다.

학살사건관련 유족과 전국 60여개 시민단체들은 22일 오후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민간인학살특별법제정을 위한 전국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방부에 신고접수되어 있는 피해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복후인 지난 48년 4월 제주 4.3사건부터 한국전쟁 중반인 51년 6월까지 미군에 의한 피해 50사건 등 모두 73건의 크고작은 학살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대위는 이를 바탕으로 제주4.3특별법 등 이미 제정되어 있는 2개 법안을 아우르는 학살관련종합특별법제정을 촉구하기로 하고 국회의원 47명의 서명을 받아 이번 정기국회에 발의했습니다.

미군이 한국전쟁을 전후해 감행한 귀축같은 민간인학살만행의 전모는 명백히 밝혀져야 하며 이에 따른 미국의 응분의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원한품고 쓰러진 희생자들의 한을 푸는 길이 있다 하겠습니다.

일선 농협조합장으로 구성된 농협농산물수매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농협중앙회의 쌀 400만섬을 정부가 시가로 매입하고 쌀시가방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농협조합장들은 또 민간시장기능활성화를 위해 쌀값의 계절에 따른 가격차를 최소한 10%이상 되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과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논농업직접지불제를 1헥타당 60만원이상으로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중등교사를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이른바 교대합병제실시방안을 반대해 동맹휴업을 벌이고 있는 전국교육대학 4학년생들이 올해 임용고사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교원대 초등교육과와 전국 11개 교대 4학년생들은 23일 임용고사거부여부에 대해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투표자의 80.1%인 3,400명이 찬성해 임용고사거부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주까지 동맹휴업을 하기로 한 전국교육대학생들은 26일 동맹휴업

연장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고등학교 교칙이 사실상 학생들의 자율성과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한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상근예비역 군인이 탈영한지 4개월만에 부대훈련장 야산에서 숨진채 발견되어 군헌병대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구지역에서 최근 출입국관련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일제시기 징용피해자들의 모임인 2차대전피해배상청구한인연합회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문제시정을 위한 한일공동연구소설치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군의 2차대전중 전쟁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행위에 대해 여성국제전범법정이 오는 12월 *** 전 일본왕과 일본정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 대외문화연락협회 대변인은 일본당국이 일본의 주체사상연구조직과 관련된 대상들을 강제수색하고 100여점의 자료를 압수해가는 폭거를 감행한 것과 관련해 23일 이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일본당국이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의 집을 강제수색한 것을 규탄해 지난 19일 ≪국제**김일성**상≫**이사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을 주체사상국제연구소이사장이며 ≪국제**김일성**상≫**이사회 서기장인** 비슈와나스가 일본정부에 보냈습니다.

성명은 일본당국이 최근 한 일본인여성의 ≪여권법위반≫문제와 관련해 이를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을 비롯한 일본의 주체사상연구조직들과 결부시키려는 시도로부터 수많은 물품들과 자료들을 부당하게 압수한데 대해 폭로했습니다.

성명은 일본당국이 이 과정에 ≪국제**김일성**상≫**이사회가** 1996년 2월에 주체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겡이찌에게 수여한 ≪국제**김일성**상≫ **상장과 금메달을** 압수해가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이 상은 진보적 인류의 영원한 태양으로 칭송받고 계시는 20세기의 탁월한 사상가, 정치가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존함을 지닌 상일뿐아니라 세계의 자주화와 평화에 특출한 기여를 한데 대한 국제적 평가의 상징으로서 신성불가침이라며 ≪국제**김일성**상≫ **상장과 금메달이 ≪여권법위반≫조사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만큼 사무국장과 관련한 대상들에 대한 조사와 압수는 일본에 있는 주체사상연구조직들에 대한 탄압으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이것은 분명히 선진사상을 따르는 인류의 이성과 양심을 훼방하고 억누르며 자주의 새 세계를 지향하는 진보적 민중의 전진을 무분별하게 저해하려는 일본당국의 비열하고 불순한 기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김일성**상≫**이사회는 도쿄지방검찰 및 경찰당국의** 불법무도한 처사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면서 당국이 그 상장과 메달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돌려 줄것과 진보적 민중의 감정에 손상을 준 이번 처사에 대해 본 이사회에 공식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에 23일 이북을 방문한 타이왕국 정부청년사업일군대표단이 꽃바구니를 진정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로동당창건 56돌에 즈음해 멕시코 민족혁명당 전국위원장이 축전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당창건 56돌에 즈음해 3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러시아의 ****,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인도네시아 *****회사, 탄자니아의 다르 에스 살람주, 민주콩고 쿤샤샤, 리비아의 ****당, 멕시코 인민사회당, 페루 아메리카인민혁명동맹에서 사진전 및 영화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미국의회에 배달된 탄저균편지를 처리한 워싱턴우체국 직원 2명이 호흡기 탄저병으로 잇따라 숨진데 이어서 백악관의 우편물을 처리하는 우편센타에서도 탄저균이 발견됐습니다.

주체 90, 10월 25일

서울 성동구에 사는 기술자 이모씨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범청학련남측본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떠들며 그들의 패권적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데 대해 비난했습니다.

9기 서부총련은 17일 성명을 발표해 서강대 총학생회장과 부회장 등 3명을 부당하게 연행, 구속한 공안당국의 폭거에 규탄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92개 시민사회단체들은 23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를 발족시켰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0여개 노동사회단체가 최저임금위반사업장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활동에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총재 이회창을 제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에 사는 전직언론인 이모씨는 최근 이회창이 언론탄압운운하며 언론자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철면피한 소리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으로 말하면 언론탄압에 앞장서온 장본인이다**. 그는 박정희정권시절 서울지방법원판사로써 한국 역사상 최대의 언론탄압사건인 민족일보사건을 담당해 조용수사장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민족일보를 폐간시킨 장본인이다.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자신의 죄악을 덮어두고 언론자유수호 운운하는 것은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이회창은 한나라당과 자신을 비판한 글을 쓴 기자들에게 ≪너희들 씨를 말려 버리겠다≫, ≪**창자를 뽑아버리겠다≫며 악담을 퍼부었다**. 이런 자가 언론자유를 떠드는 것은 언론인들을 기만우롱하는 용납할수 없는 행위가 아닐수 없다. 이런 저질적인 정치인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이다. 쓸개빠진 놈이 정치인, 야당총재랍시고 활개치고 있으니 정치계가 얼마나 한심한가를 알수 있다. 만일 이회창이 대통령이 된다면 언론을 아예 죽여버리고 말 것이고 나라는 망할수 밖에 없다. 이회창을 제거해버려야 한다.≫

또 부산대학교 4학년학생 김모군은 이회창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운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애국적인 사람들을 악법을 휘둘러 처형한 살인마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것처럼 이회창은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관련자들인** 문부식, 김현장 등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김은숙, 이미옥 등 관련자 전원에게 징역을 선고한 대법원판사였다. 이회창은 1957년 2월부터 1993년 2월까지 판사, 두차례의 대법관 등을 해먹으며 역대독재정권에 적극 협력하면서 국민탄압에 앞장서온 민족반역자이다. 그의 손에 의해 사형당하거나 옥고를 치른 사람들은 수천수만에 달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회창이 5, 6공시기에 대법관으로 일한 것을 떳떳하게 생각한다느니 양심과 정의의 기준으로 재판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정말 철면피한 자가 아닐수 없다. 피로 얼룩진 이회창은 마땅히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조선로동당창건 56주년에 즈음해 브라질 10월 8일 혁명운동서기장이 축전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조선로동당창건 56돌,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75돌에 즈음해 쿠바의 통신, 방송이 특집했습니다.

조선통일지지운동 제20차 전국집회가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지지 일본위원회, 일조문화교류협회, 일조*** 교류협회, 조선해방과 연대하는 일본시민연락회와 가이나마현 실행위원회의 주최로 지난 20일과 21일 일본 가이나마현에서 진행됐습니다.

우간다인사들이 주체사상국제연구소와 그와 관련된 대상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강제수색을 규탄했습니다.

주체 90, 10월 26일

지난 20일 이북의 ≪피바다≫ 가극단 창립 30돌에 즈음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가극 ≪피바다≫공연을 관람을 하셨다는 소식에 접해 서울에 사는 연예인 정희윤씨가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소속 신부들이 단병호민주노총위원장석방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 단장이 지난 25일 남측대표단 수석대표에게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토마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23일 미국의 테러전쟁과 관련해 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반도 전력은 테러전쟁전보다 보강되고 있다고 떠들었습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이같은 발언은 있지도 않은 북의 위협을 구실로 한국에 무력을 계속 끌어들이고 있는 미국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궤변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24일 김명섭사무총장 폭행사건과 관련해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공개사과를 촉구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대통령 부시가 또다시 분수없이 이북을 걸고 든 것과 관련해 23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5일 이북을 방문하고 있는 타이왕국 정부청년사업일군대표단, 중국인민해방군 외사일군대표단, 이북주재 나미비아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 평양국제과학기술도서전시회에 참가하고 있는 대표단, 대표들이 경애하는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 이북을 방문하고 있는 타이왕국 정부청년사업일군대표단이 선물을 드렸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조선로동당창건 56돌, 타도제국주의동맹결성 75돌에 즈음해 여러 나라의 방송들이 특집했습니다.

주체 90, 10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공동행사 부산지역청년학생추진위원회는 최근 일본이 군사대국화와 군국주의부활책동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15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는 10월 25일 통일연대 등 일부 방북단에 대한 근거없는 추측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관련보도심판청구서를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한편 대검찰청소속 과장급 부장검사 20여명은 인사청탁과 로비를 통해 승진했다는 조선일보의 허위기사로 명예가 훼손됐으며 조선일보와 이 신문 편집국장, 기자 등을 상대로 1인당 5,000만원씩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청구소송을 24일 서울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이같은 사실들은 조선일보가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어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미국대통령 부시가 아펙정상회의를 앞두고 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미대화를 원하고 있는데 북이 응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며 북을 심히 자극하는 발언을 한데 대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통일운동단체의 한 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미대화가 중단된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강경정책때문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부시는 대통령자리에 올라앉자마자 대북강경책을 쓰면서 클린턴행정부때 좋게 발전하던 북미관계를 모두 뒤집어엎었다. 부시는 북의 핵문제와 미사일문제를 걸고들다못해 북의 상용무력 감축문제까지 거론하며 일방적인 대화조건을 내걸었다. 이것은 북을 무장해제시키겠다는 속셈이 분명하다. 이런 강도적 요구를 내건 미국과 누가 대화할 것인가.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내외여론을 무시하고 오히려 통일후에도 계속 주둔시키겠다고 할 뿐아니라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구실로 한국에 공군무력을 증강하려고 책동하면서 북의 상용무력을 감축하라고 떠들고 있으니 정말 파렴치한 수작이 아닐수 없다. 북미대화가 중단상태에 빠지고 북미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부시때문이다. 미국의 그릇된 대북적대시정책은 남북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시는 이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통신 계약직노조원 30명은 24일 서울 **구 공중전화본부앞에서 부당해고규탄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10여분간 기습시위를 벌였습니다.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는 10.26사태 22주년을 맞아 서울 탑골공원앞에서 집회를 열고 박정희기념관건립을 반대했습니다.

지난 83년 5월 공안부대에서 월북기도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의문사한 이은성씨의 유가족이 24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일민단계 동포들의 통일마당집회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에 걸쳐 고베와 **에서 재일한국민족통일연합, 재일한국청년동맹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실행위원회 주최로 진행됐습니다.

재일교포신문인 ≪**민족시보**≫ 21일자 일본이 범죄국으로써 죄가를 완전히 청산할 것을 주장하는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일본이 오래전부터 꿈꾸어 오는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의 길을 닦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22일 유엔총회 제56차회의 전원회의에서 평화문제 토의시 이북동포가 연설했습니다.

멕시코신문 ≪트라바홀≫ 25일자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사진을 모시고 ≪사회주의사회의 **김정일**≫**이라는 제목으로** 특집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추대되신 4돌과 조선로동당창건 56돌에 즈음해 러시아 빠뜨리오뜨신문사에서 도서 ≪위대한 영장 **김정일**≫**을 출판했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21돌에 즈음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인사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국통일부분의 요지를 기니통신이 보도했습니다.